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5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98-1099 1983년 4월 4일 & 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 Tuesday, April 4 & 5,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신용조합 2만5천달러 첫흑자기록 자산 3백만달러선 돌파 1,600여 조합원에 배당

창립이래 계속 적자를 보아오던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이 82년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31일 신용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83년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82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금이 25,784달러이다.

1976년 10월에 출범, 80년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온 신용조합은 81년말까지의 적자 누적액이 11,591달러에 달했으며, 81년 한해동안의 적자액은 7,035달러였다.

이같이 지난해에 이익금을 내게되자, 신용조합 이사회에서는 이익금의 일부를 한인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기본방침에 따라 최근 한인회관이전모금위원회와 토론토대학 한국학과후원재단에 각각 1,000달러씩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총회에서 이 돈을 전달했다.

경영이 흑자로 돌아선 지난해는 또한 조합의 자산이 300만달러선을 넘어선 해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된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82년도말 총자산은 3,218,695달러로 81년도말의 1,774,157달러에 비해 무려 150만달러의 증가를 보였다.

조합원수에 있어서도 지난 한해동안 500여명이 늘어 년도말에는 총 1,600여명이 되었으며 금년말에서 2,000명선을 무난히 넘게될 것이라고 이홍렬 전무이사는 전망했다.

이전무는 이어 금년말의 총자산규모는 500만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면서 금년에는 업무전반에 대한 전자계산화를 위한 콤퓨터설치와 조합원과 교민에 대한 이익환원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예금금리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일반시중은행보다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범대출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총대출은 570건에 2,882,537달러였으며 이중 부동산담보대출은 8건에 233,000달러가 승인되었다.

김위원장은 연체전수는 총건수의 약 1.1%에 해당하는 19건에 총 27,727달러라고 밝히면서 회수업무를 징수대행회사(Collection Agency)에 위탁했으며 일부금액은 회수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총신청건수중 70%는 김연수 상무선에서 신용조사해서 처리되고 나머지 30%정도가 대출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밝히면서 기각되는 율은 약 40%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31일 열린 83년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인사를 하는 한상훈 한인신용조합 이사장. 임기가 만료된 한이사장은 이날 유임되었다.

金大中씨·카터會同

"人權신장 노력하자"

(애틀란타-김학규기자) 조지아주 애틀란타시를 방문한 김대중씨는 30일 지미카터전대통령과 만나 세계인권문제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대중씨와 부인 이희호여사는 애머리대학, 레이니총장의 안내로 하오 3시 대학빌딩 7층 카터교수실을 방문, 지미카터전대통령과 40분간 환담했다.

이자리에서 김씨는 세계도처에서 인권탄압사례가 늘어나고있는 현실에서 카터전대통령이 인권문제연구소를 통해 인권 개선을 노력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카터전대통령은 인권신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상오11시 캠퍼스내 케논챔플룸에서 한국정치사의 인권문제에 관해 강연했다.

▲카터와 만난 김대중씨 - 김대중씨가 애틀란타의 에머리대학에서 지미카터전대통령(가운데)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김대중씨와 카터와의 합동연설은 취소됐으나 김대중은 에머리대학생들에게 이날 별도로 강연했다. 오른쪽끝은 에머리대학교 레이니총장.(애틀란타-UPI전송-김학규기자찍음)

「참전용사 위안의 밤」

9일 다운타운 할리데이·인…한인회주최

6·25동란 휴전 30주년을 맞이하여 토론토한인회(회장 장순채)는 4월9일(토) 다운타운 할리데이·인호텔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를 위안하기 위한 파티를 거행한다.

토론토총영사관과 해병전우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참전용사위안의 밤」행사에는 캐나다 참전용사 200여커플이 초청되며 한국측에서는 이규현대사 부부를 비롯, 150여 커플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녁7시부터 칵테일·디너·기념식(Ceremony)과 여흥순으로 진행될 이날 행사의 입장료는 커플당 60달러이다.

7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칵테일에는 한국무역관(KOTRA)이 제공하는 한국발전상을 소개하는 비데오·테이프 상영이 있으며 디너에는 하르빈한약상사 주인 서춘봉씨의 딸 서정양의 바이올린 연주가 곁들여진다.

기념식에서는 장순채 회장,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이대사, 참전용사 총회장의 순으로 스피치가 있게되며 교민 김은숙씨의 가야금연주, 김미영씨의 북춤과 아리랑쇼가 뒤따른다.

한편 2부여흥순서에서는 5인조밴드에 맞추어 신현희, 김미리자씨등 교민가수들이 등장한다.

캐나다참전용사회측에서는 초대의 보답으로 참전용사회소속 밴드부원을 동원, 귀빈들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며 이대사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참전용사에게 손수 꽃다발을 달아줄 예정이다.

장회장은 본지와의 회견을 통해 캐나다참전용사회 Unit 5(토론토지구), Unit 6(베리지구)및 Unit 11(오샤와지구) 회원 28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3월31일까지 142명이 참석하겠다는 회답을 보내와 200명의 참석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내는 지난해 미스코리아 진·선·미와 토론토대학 여학생들이 맡으며 참석자에게는 한인회가 마련한 뱃지가 배부된다.

장회장은 헤드·테이블의 수를 가급적 줄일 예정이며 각 테이블에는 번호를 붙여 교민 2커플에 참전용사 2커플씩 배정해서 교민들끼리만 한곳에 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병상에 누워있는 참전용사를 위문할 계획이라고 장회장은 전했다.

6.25당시 실전에 가담한 캐나다군 병력은 2,200여명에 달했으며 그후 지금까지 교체병력은 연인원 20,000여명에 달한다.

오늘의 예금금리(3/10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5%		7.5%
90일	9.0%		7.5%
180일	9.0%	8.75%	7.5%
365일	9.0%	8.7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대학생 8명사망

—인수봉 등반참사—

(서울4일=연합)부활절인 3일 서울근교 인수봉(803미터) 암벽을 등반하던 8명의 대학생 등반대원이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와 강풍으로 타고있던 밧줄이 얽히는 바람에 정상부근에서 조난 사망했다.

폭설을 동반한 강풍이 이날 10시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조난소식은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강풍과 장비부족으로 인해 긴급구조가 지연되어 이같은 참사가 빚어졌다.

1971년 11월에는 인수봉에서 7명의 등반대원이 참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금주의 행사▷

— 1983년 4월4일(월)~10일(일) —

◆4월6일(수) 하오7시 아이스하키협회 정기총회
곳: 클린톤하우스(535-9541)
연락처: 496-1100, 255-4645

◆6일(수)~9일(토) 매일 하오7시30분
(토요일은 상오 10:30, 하오 2:00)
부활절기념 대부흥성회(강사 고원용 목사)
곳: 토론토소망교회(35 Kecala Rd, Scar.)
연락처: 752-9727, 9860

◆7일(목) 밤11시 해밀톤·벌링턴실협 임시총회
곳: 945 Upper James St.(Hamilton)

◆7일(목) 하오7시30분 토론토한인성서학원 개강
곳: 토론토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
문의처: 535-6864

◆9일(토) 하오7시 토론토한인회 주최
「참전용사 위안의 밤」
곳: 다운타운 할리데이·인
연락처: 755-9288(한인회)

◆9일(토) 상오 10시~하오 9시
기독학자회 세미나
주제: "이민교회와 가정생활"
곳: 한인교회(69 William St, Weston)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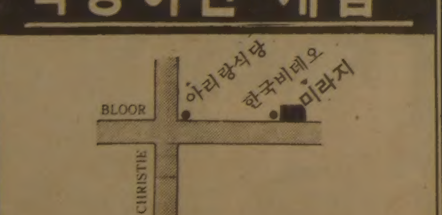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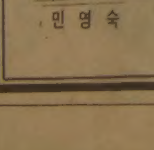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R 622-5147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4월5일(화)부터
확장이전 개업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 옆)
(416)530-1870 권수희

•봄철스페샬•
영숙
보석상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봄철 다이아몬드 세일
◆각종 고급 보석 취급
◆품질 보장 책임
◆최저가격 보장
◆보증서 발급
※오래된 보석을 개조할 수도 있으며 교환도 가능합니다.
215 Yonge St.
(영×퀸북쪽)
(B)368-7961 (R)690-5217

민영숙

아늑한 분위기의
"남강"에서 만납시다.
◎한식일체
◎일본식일체
◎쓰시바 4월1일부터
각종 데리야기·모리소바·
오뎅백반·쓰시·사시미
연회석(50여석)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영업시간 :
토·일요일 낮12시~밤1시까지
월·금요일 아침8시부터밤1시까지
南江

Restaurant & Tavern
920 YONGE ST. (north of Bloor) 923-3060
※지하 파킹장은 오후9시부터 무료이며, 특히 토·일요일은 무료입니다.

스타미용실

월요일:새 이전장소
1353 Danforth Rd.
(DANFORTH RD.×EGLINTON에서 약간 북쪽 COURTESY플라자내)
동쪽에서 월요일만 하고 있는 미장원을 이번에 남·녀 모두이용할 수 있는 아래 장소로 옮기게 되었사오니, 교민 여러분 많이 왕림하여 주시면 최대의친절과 써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다.
● 전화예약 / 화~토 : 741-4410
월 : 261-1533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토론토교회 새벽연합예배 350 신자참석

"할렐루야 구주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을 깨치고 예수 다시 사셨네."

3일 새벽 6시 써니부룩파크(Leslie×Eglinton소재)에서 열린 토론토시내교회 부활절연합예배(교역자회주최, 한인장로교회주관)에 참석한 신자들이 목소리 합하여 부른 할렐루야 부활찬송소리가 새벽동산에 메아리쳤다.

밤새 진눈개비가 내리는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배에는 약 35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예배직전 비는 멈췄으나 강풍이 부는 가운데 박회민 목사의 사회와 한인장로교회 성가대의 송영으로 시작되어 반병섭목사(한인교회)의 기도, 김재황목사(영락교회)의 성경봉독, 성가대 찬양, 김용출목사(제일장로교회)의 설교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목사는 「의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의 사실을 믿고 의롭게 사는 이들은 모두 부활할 것이며, 의롭게 산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거짓과 악이 난무하지만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며, 소망중에 살게 될때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헌금순서(구연원장로 기도), 광고(이필주목사), 안병한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날의 헌금은 선교와 자선사업에 전액 쓰여진다고 주최측이 밝혔다.

예배후 참석자들은 준비된 커피를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온」주전역 2주간
음주운전방지 캠페인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사상최대의 캠페인이 2주일내에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온타리오주 교정부의 후원으로 실시될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은 음주운전자들에게음주운전에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을 만나게 함으로써 충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조정관인 랜지·케인씨는 "자기 아들을 치고 도망간 사람과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음주운전범법자들에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해서 충격을 준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크라이슬러
불량차량 발견

(윈저)크라이슬러·캐나다 자동차회사는 일본 미쯔비쉬회사에서 만들어진 일부 크라이슬러제품이 개스탱크가 떨어져나갈 우려가 있음을 발견, 회수에 나섰다.

회수대상차는 76년형 플리마스·에로우(Plymouth Arrow)와 77년형 에로우즈(Arrows)및 78년 다지·콜츠및 에로우즈(Dodge Colts & Arrows)이다.

동 모델을 가진 차주들은 각 딜러에서 무료로 개스탱크를 바꿀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크라이슬러회사는 미쯔비쉬에서 만든 163,000대의 K-카계열 소형차량도 같은 이유로 회수하고 있다.

부활절의 기쁨

데이지 프라이스

주 예수여,
나도 또한 당신을 모른다 했읍니다.
때문에, 뺨을 스치는 새벽 바람은 싸늘하였고,
때를 알리는 닭 소리는 무척이나 크게 들렸읍니다.

나도 또한 학자들이 잔꾀를 부려,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모욕을 준 뒤 죄를 씌워
나중에는 십자가의 형틀을 지우는 동안
오직 가만히 앉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이, 잠자고 있던 몸이,
아름답고 힘차게 소생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순간 의심은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은 사랑과 노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신임이사장에 김태진씨

토론토한인회 83년도 정기이사회

토론토 한인회 8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31일 저녁7시30분부터 한인회관(20 Mobile Dr.) 회의실에서 열렸다.

새 이사회는 금년초 한인회 총회에서 인준된 이사선임위원에 의해 선출된 신임이사 27명, 기존이사 1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함병섭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의 모임에는 총 4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40명의 이사중에는 여이사 4명도 포함되어 이채.

이날 회의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캐라반운영위원회 브리핑, 이날밤 가장 관심을 끈 신임 이사장·부이사장·감사 선출, 재무감사 추가보고등으로 진행되었다.

장순채 한인회장은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재상사및 교민대화의 밤, 3.1절 행사등의 경과보고와, 앞으로 있을 한국전참전용사초청의 밤(4월9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2회 청소년예술제(5월28일)등의 당면문제를 소개하고 새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이대환 캐라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작년도 행사에 약 15만명의 외국인들이 "서울관"에 참석했다고 설명하고 국위선양과 교포권익의 좋은 기회이니만큼 적극 활동할 것과 협조를 당부하고 금년도의 행사는 6월17일부터 26일사이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날밤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이사장단 선출은 현 이사회정관에 따라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표를 얻은 자가 당선될것임과 투표방법으로서는 이사 각자가 대상자를 추천, 과반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과반수가 못되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해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거행된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물망에 오른 6명이사중 최다득표및 차점자인 김태진, 이대환 이사에 대해 2차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 앞서 두 이사에 대한 소신을 듣자는 C이사의 제안으로 인사와 소견을 들었다.

2차투표 개표결과는 김태진 이사가 과반수를 넘어 차기이사장에 선출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부이사장도 결국 2차투표를 벌인 결과 이영현, 박광철 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신구이사장의 인사후 김태진이사장의 사회로 속개된 감사선출은 이기천, 강공선, 한광명이사가 당선되었다.

이날 신임 김이사장은 "각단체및 교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에트닉 그룹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이사장은 과거에 이사장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다.

◆신·구 이사장 교체식에서 김태진 신임이사장(왼쪽)이 퇴임하는 함병섭 전임이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金聖鍾작

〈204〉

어머니와 아들 ⑪

먼 異國땅서 어머니를 불러봤지만…

그런때 세 밤만 자고 오겠다던 어머니는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 고아원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가 거지꼴이 되어 고아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1년 동안에 그의 정신연령은 그 또래를 훨씬 뛰어넘어 높아져 있었고 성격 또한 강인해져 있었다.

어느날 그는 목에 이름표를 걸고 몇몇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지만 그는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

한숨 푹 자고나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무섭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느 인자하게 생긴 중년의 미국 부부에게 인도되었다. 고아들을 데리고온 한국인이 그들 미국인 부부에게 인도하면서 『너는앞으로 이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한다』고 말했을때 그는 몸부림치며 울었다. 그때 처럼 어머니가 보고싶은 적이 없었다.

미국인이 억센 손으로 그를 번쩍 들어 차에 태우자 그는 그손등을 콱 깨물었다. 손등에 피가번지자 미국인의 인자하던 표정이 험상궂게 변했다. 여자가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겁이 나서 더욱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미국인 남자는 목사였다.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이는게 아니었다. 집에는 아이들이 다섯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양자를, 그것도 황색인종을 자식으로 맞아들인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 한국인 소년은 미국인 목사의 박애정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목사는 어디를 가나 장식품 처럼 그를 데리고 다녔다. 확실히 소년은 목사의 박애정신을 돋보이게하는 장식품이었다.

목사의 설교는 한층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한층 더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밖에서의 목사는 소년의 좋은 아버지였고, 소년 또한 목사의 귀여운 아들이었다.

朴 男 그림

그러나 집안에 일단 들어오면 언제 그랬느냐싶게 그런 관계는 사라지고만다.

목사는 무서운 미국인에 불과했고, 소년은 천덕꾸러기로 대접을 받았다. 그보다 큰 미국인 아이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그를 놀려대고 때렸다. 그런데도 언제나 벌을 받는 쪽은 소년이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하는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유색인종에 대해 멸시감을 품고 있었다.

소년은 그들의 식사가 끝난 뒤에야 식탁에 앉을 수가 있었다. 잠도 다락에서 혼자 자야 했다. 그의 양부모는 그의 잠자리에 와서 기도해주거나 찬송가를 불러준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외로왔고 말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무럭무럭 성장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찾겠다는 일념을품고―.

열세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목사 집을 뛰쳐나왔다.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목사가 제일 아끼는 백금 마상(白金馬像)을 들고나와 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이틀후 그는 붙잡혀 소년원으로 넘어갔다.

6개월 후 그는 좀더 강해지고 교활해지고 증오에 찬 모습으로 소년원을 나왔다.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

의인의 부활

(행2 : 23~28)

김용출목사(제일장로교회)

◆김용출 목사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사심」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새 생명의 소망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1)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경륜대로 되었다고 함이다.

(2)의인은 부활해야만 되고, 부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는 여기에서 두번째의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곧 의인은 부활해야만 되고, 또 부활한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 죽음의 형태는 갖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진리를 위해 살다가 죽은 죽음이 있다.

의를 위해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러하다.

주님의 죽음이 본래 가당치 않는 것은 본문 2 : 33의 「법없는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사망의 고통을 푸셨다(24절). 그리고 이미 옛날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는 「썩음을 당치 않도록」 조치가 되어졌다(27절).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만이 의로운 분이시요. 선한분이시다. 의인은 죽어도 죽음에 매어 있을수 없고, 그 육체가 썩어져도 안 되었다. 그래서 의인은 다시 사신 것이다.

이 의인의 부활은 이제 「예수안에(in Christ)」서 의롭게 산자도 부활한다는 진리의 대 전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였다(고전 15 : 23). 다시말하면 첫 신호였다. 의인은 반드시 다시 산다는 첫 신호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롭게 된자(칭의–Justification)는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또 반드시 다시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한다. 의롭게 사는자가 땅위에서 영화를 누릴수 없다.

의롭게 사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 땅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의는 곧 핍박이다(마 5 :10).

의 의 길은 곧 핍박의 길이다. 좁은길이다. 골고다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의로운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진다고 함은 하나님의 큰 경륜속에 있는 「상급」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상급」이다. 의인의 부활은 의인이 받는 영원한 「상급」이다.

높은자, 권세가, 명예가, 이 땅위에서 거드럭 거리고 세도를 부리고 불의하게 살던자, 그는 이미 이 땅위에서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이 땅위에서 영화도 영광도 다 맛보았다. 그러므로 이런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 또 있어서도 안된다.

부활은 곧 상급이자 「영광스러움」이다.

땅위에서 「의」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된자들,

부활은 저들에게 상급이요, 「영광스러움」으로 관이 씌워지는 사건이다.

이 땅위에서 호화롭게 열락하던 부자는 죽은후에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었다(눅 16 :). 그는 형편없는 고통의 자리로 전락하였다. 악인의 부활은 그러하다.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악인의 부활이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 위에서 모진 고생을 다 겪었다. 죽은후에 그는 부활하였다. 거지 나사로의 부활은 그에게 상급이요, 영광이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위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사람의 표본이다. 한평생 멸시와 천대만 받으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의 표본이다.

예수안에서 의롭게 살려면 언제나 가장 낮은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가장 낮고 비천하게 살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살 수 없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예수! 이분은 참으로 낮아지신 분이다(빌 2 : 7~8).

가장 낮아진 자리가 곧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볼려면 이 땅위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아진자, 십자가를 지고 의롭게 산자를 높이신다. 이것이 부활이다(빌 2:9~11).

오늘날 이 땅위에는 여전히 거짓이 많다. 악이 난무한다. 악이 가득찬 세상이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박고 희롱하며, 독의만만해 하는 세상이다.

구조적인 악, 권력의 악, 공산주의의 악, 자본주의의 악, 부도덕의 악, 상도의 악, 악, 악, 악, 악이 난무한다.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악인의 형통함(시 73 : 3)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세태이다.

독일의 신 나치즘이, 일본의 신 군국주의가 부활할까 염려한다. 악의 부활이다. 저들이 부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부활한다고 해도 염려는 없다.

악의 결국은 두번째의 사망뿐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악이 악을 죽이기 때문이다(계 20 : 14)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의롭게 살면서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거짓되고, 악하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을 보기전에 우리들 자신들의 거짓과 악을 보고 통분히 여겨야 한다.

우리들 자신속의 거짓과 악에 도전하고,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곧 「사죄의 은총의 극치」가 된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죄의 은총」이다.

사죄의 은총의 극치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축복속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이다(롬 6 : 8)

시인 T.S.Elliott가 읊은것처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땅에서 라이락을 피워내고」의 의미는 자못 깊다.

생명이 죽음에 도전할 때, 죽음은 결국 생명에게 삼킨바가 된다는 뜻이리라. 그래서 4월의 대지는 죽음을 몰아내고, 새 생명을 포근히 감싸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치 부활의 새 생명이 사죄의 은총이듯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Easter Bunny의 생일날 정도가 아니다. 색깔을 칠한 계란의 축제도 물론 아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의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신앙의 엄숙한 선언이어야 한다. 고통당하는 땅위의 인류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음을 전해주는 소망의 절기여야 한다.

그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자」(Ready to Depart)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딤후 4 : 6~8) 말이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를 의롭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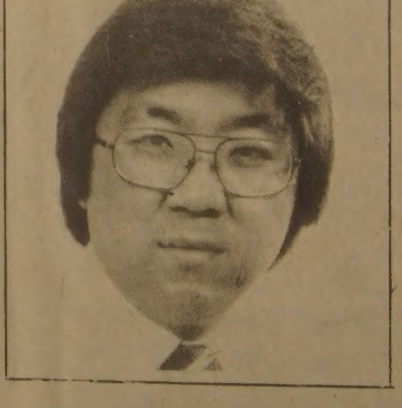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교포여성 12%가 파경겪어

80년 인구조사 시카고지역 통계

시카고지역 한인 가정들은 주로 부부중심으로 구성됐으나 가정파탄을 경험한 사람들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년 4월에 실시된 연방인구조사에서 시카고 시내 거주 한국인은 1만165명으로 집계되어 일리노이거주 한인(2만 3천989명으로 집계)의 42.4%가 시카고 시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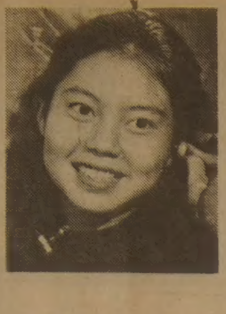
일리노이 한인중 87.6%인 2만1천20명이 시카고 지역(SMSA) 6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카고 지역 한인중에는 여성이 53.7%로 남성(46.3%)보다 많으며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27.6세로 시카고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 29.8세보다 2.2년이 젊다. 특히 한인사회에서 18세미만의 청소년, 아동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인구는 3%에 불과한 591명이 집계됐다.

가정형태는 대부분(91%)이 남편을 가장으로 하는 부부 중심의 가정이어서 한인 가정의 건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는 6.7%인 296가정(시는 7.9%, 189가정)이며 그중 대부분(236가정)이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양하고있다.

한인세대당 평균 가족수는 3.59명이며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718명으로 집계됐다. 부부가 함께 있는 가정, 자녀수로 보아 시내보다 교외지역의 한인세대들이 약간의 안정성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지역 한인중 대부분인 1만7천323명이 쿡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서버번 카운티중 듀페이지에 2천183명, 레익 카운티에 887명, 윌 카운티에 281명, 케인 카운티에 257명, 맥헨리 카운티에 89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5세이상 성년기의 독신 여성 비율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다음 도표와 같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은 별거 94명, 사별 626명, 이혼 256명으로 여성의 12.4%인 976명이 가정의 파탄을 경험했는데 남성인 경우 3%인 181명이 가정 파탄을 경험한 것과 대조된다.(이자료는 시카고대학사회학과 대학원 김혜정씨가 분석했으며 일부 해석은 본지사가 추가한 것임)



▲언제나 희소식이 올까—하루빨리 정치망명이 승인되기를 바라는 후·나양이 샌프란시스코에서 ABC—TV의 뉴스쇼 「나이트라인」에 출연, 이어폰을 끼우고있다. 〈샌프란시스코—AP〉

후나孃의 亡命신청 연방移民局서 거부

〈LA—AP〉 연방이민국은 미국에 망명,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있는 중공여자테니스선수 후·나양(19)의 정치적 망명신청을 거부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를 법무성에 전달했다고 LA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망명신청을 거부한 알란·넬슨 이민국커미셔너의 추천서는 윌리엄·프렌치법무장관에 의해 번복될것으로 예상되며 후·나양의 망명이유에 대해 연방이민국과 국무성간에 거센 논쟁이 일고있다.

후·나양이 망명을 신청하자 이민국은 망명을 찬성하는 국무성에 자세한 망명이유를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국무성은 단지 『후·나양은 난민으로서 미국에 체류해야 된다』는 답변만을 거듭해왔다.

이민국의 입장은 지난80년 중공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에서의 정치적난민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망명해야 된다는 「난민법」에 의거해 국무성으로 부터 적당한 망명이유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후·나양의 망명신청을 거부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나양을 둘러싼 미—중공간의 미묘한 입장으로 현재 중공을 방문중인 토마스·오닐 하원의장을 포함한 연방의원들이 미국에 돌아오기전까지 후·나양의 망명신청에 대한 어떠한 공식결정도 내려지지않을것으로 보인다.

이긍규기자 재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제19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현회장인 이긍규기자(경향신문)를 재선출했다.

10살 나체사진 게재허용

(알바니, 뉴욕—AP)성숙한 10대 여배우이자 모델인 브룩·쉴즈양(17)이 10살때 찍은 나체사진은 포르노잡지를 제외한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9일 "쉴즈의 나체사진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브룩·쉴즈는 8년전 어머니가 사진사 게리·그로스와 맺은 사진게재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제의 사진들은 쉴즈가 10살때 4백50달러를 받고 목욕탕에서 나체로 포즈를 취한 것.

그런데 1980년 이 사진들이 플레이보이계 간행물인 「포르토 폴리오8」 프랑스잡지 「포토」등에 실리자 쉴즈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인신용조합

〈1면에서 계속〉

김상우는 지난해 외환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해 조합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처음으로 이익을 보게된 것등으로 보아 조합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1월28일 이사회에서 채택된 정관개정안이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관은 참석 조합원의 3분의2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에따라 1)정관 10조5항의 조합원에 대한 융자한도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2)부동산 담보융자는 50,000달러에서 100,000달러로 증액되었다.

윤호영간사는 개정안 설명을 통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회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개정된 정관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회, 여신위원회및 감사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

이사회에서 한상훈 이사장과 윤호영간사는 유임되었으며 김장환이사의 후임에는 김상융박사(온타리오 하이드로 근무)가 선출되었으며 2년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한 서준경이사에 대한 보선에서 강기웅씨가 선출되었다.

〈이사회〉

이사장—한상훈
부이사장—김학량
간사—윤호영
전무—이홍렬
이사—김상융
이사—강기웅
이사—김병권

〈여신위원회〉

위원장—김창범
위원—최태권
위원—김종조

〈감사위원회〉

위원장—심재환
위원—김인규
위원—정필주

〈영업부〉

상무—김연수
사무원—박숙기
사무원—이영희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波瀾萬丈「이철수드라마」 ①

억울한 獄살이「10년 敎訓」과 석방후의 問題點

이철수사건은 그가 석방되었다해도 끝난것이 아니다. 몸만 교도소에서 빠져나왔을뿐 재판은 계속된다. 이철수씨의 드라마는 법정투쟁면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자신에게는 석방되고난 후부터가 시작이다. (LA지사발)

아무런 對策없는 生計·사회적응 난관
15년전家出 가족과 再結合도 쉽지않아
갱들 보복등 신변안전문제 큰 골치
앞으로의 裁判 費用도 걱정거리로

이철수후원회는 이철수 석방을 위한 민권단체의 성격을 지녔기때문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짜놓은것이 없다.

그는 교도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의 갈길을 스스로 결정해야할 많은 숙제들을 지니고있다.

첫째는 가족과의 재결합이다. 올해30세된 이철수씨는 15세때부터 가출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현재까지 15년간 떨어져 있다.

어머니 이미래씨는 『철수가 나온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또 그것은 본인과 상의해야할 문제구요.

이철수씨는 그의 어머니와 조용히 살고싶다는 희망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건강때문에 현재 집에서 쉬고있으며 이씨자신도 나오자마자 직장을 가질수 없는 형편이라 이들 모자가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곤란을 느낄것으로 보인다.

그의 어머니는 『교포들에게 우리생계문제까지 신세지기는 싫다. 내가 노동을 해서라도 철수와 나의 생계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이철수씨에 대한 석방후 신변안전문제다.

차이나갱단두목 입예택을 죽인 진범은 현재 하와이에서 살고있다는 소문이 재판과정에서도 나왔었으며 이들은 이철수가 무죄로 증명되어 차이나갱 살인사건이 다시 수사받는것을 원하지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무엇보다도 이철수는 교도소내에서 일어났던 제2사건에서 아리안파의 갱두목 니드햄을 죽였기때문에 아리안파가 석방된 이철수에게 보복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그의 변호사마저 주의를 환기시키고있다.

이철수씨자신은 최근 가족및 친지들과의 면회에서 『내가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급한것은 한국말을 배우는것과 Job을 얻어 어머니를 부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세번째 문제점은 그의 재판이다.

앞으로 빨리 끝나면 3개월, 길어지면 1년을 끌수도 있으며 많은 변호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또한 제1사건(차이나타운갱사건)은 무죄가 되었지만 제2사건(옥중정당방위사건)은 유죄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철수가족들은 시민권자이지만 이철수씨 자신은 영주권자)에 대한 2차적인 조치(강제출국명동)에 다시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사리고있다.

〈스탁턴—변홍진 특파원〉

1983 PAN AMERICAN OPEN
TAEKWON-DO CHAMPIONSHIP
TIME: APRIL 16, 1983
ELIMINATION 12 P.M.
FINAL 7 P.M.
PLACE: ETOBICOKE OLYMPIUM
590 RATHBURN RD.
ETOBICOKE, ONTARIO
TICKETS:
ADULTS $5.00
CHILDREN (UNDER 12) $3.00
FOR MORE INFORMATION
(416) 247-7577
RIM'S TAEKWON-DO SCHOOL
(INSTRUCTOR: RIM SONG HACK)
1963 WESTON RD. WESTON, ONT. CANADA M9N 1W8

한국일보

우리의 주장 (...) 전달하는 한국일보

베트남軍、泰國 침공

어제새벽 6천병력 越境 大接戰

탱크등 동원… 民間人 350명死傷

【방콕=外電綜合】 수주간 태국접경지역에 병력을 집결해온 베트남은 31일 새벽, 드디어 6천명의병력을 동원,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지 게릴라거점 프놈차트에 대해 대공세를 펴기시작했다.

이날 탱크와 야포를 동원한 이날 전투로 크메르루지난민 1만여명이 국경을넘어 태국영으로 쏟아져들어왔으며 베트남의 대병력도 越境, 태국군과도 한동안 치열한접전을 벌였다.

태국군 최고사령부 관계자들은 兩軍의 충돌지역이 방콕동방 3백㎞지점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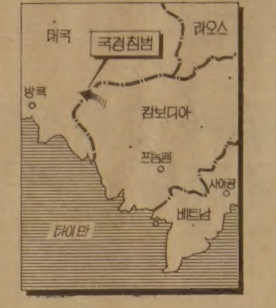
이날 대공세로 3백5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크메르루지 게릴라와 베트남간에 치열한 전투가 아직도 계속되고있다고 태국군 고위관리가 말했다. 태국국경을 넘어들어온 베트남군과 한때 교전을 치른 태국군은 전투가 더이상 태국영내에 확대되는 사태에대비, 국경주둔 병력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이날 베트남군은 소련제T54탱크, 1백5밀리 야포, 1백7밀리 로키트포등의 중무기를 동원했다.

태국접경밀림속에서 反베트남투쟁을 지휘하고있는 前캄보디아수상 손·산은 지난 25일 베트남이 중무기를 동원한 대병력을 자신의 게릴라조직 KPNLF (크메르인민해방전선)를 공격하기위해 집결시키고있다고 경고한바있다.

이번 베트남군의 대공세를 받은 크메르루지 프놈차트기지는 반사게및 농사메트등 2개소의 KPNLF거점 중간지역에 위치하고있으며 이곳엔 親베트남 정권에 쫓긴 10만여명의 캄보디아 난민과 3천5백여명의 크메르루지 게릴라들이 살고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와 다른 구호단체들은전쟁난민구호에 착수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국군 사령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소지가크며 사상자수도 늘어날 가능성이있다고 관측했다.



방콕東方 3백㎞…캄 게릴라 소탕하다

泰軍비상警戒令、難民 1만명 쏟아져

北海産油價 또 引下

배럴當 50~75센트

【런던·스타방게르(노르웨이) AP·聯合】 영국국영석유회사(BNOC)는 30일 北海産 브렌트경질유 기준가격을 현행 배럴당30·50달러에서 나이지리아産 경질유가와같은 배럴당30달러로 추가인하, 3월1일자로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롤리·대리어코트 BNOC 대변인은 브렌트경질유 이외 다른油種의 北海産 원유가도 「質과 引渡비용차액등을 감안」하여 현행 배럴당30·50달러에서 29·75달러로 최고 0·75달러까지 하향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어코트 대변인은 조정된 새유가가 BNOC의 주요 고객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질경우 지난3월1일자로소급적용될것이라고설명했다.

全대통령, 空士졸업식 諭示

"領空방위 물샐틈없게

武器보다 將兵들의 意志에 勝敗달려"

◇全대통령이 空士졸업식에서 졸업생도에게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全斗煥대통령은 31일 우리가 추구하고있는 조국의 선진화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안정기반위에서만 가능한것이며, 또한 그러한 안정은 우리의 生存과 안전에대한 확고한보장이 그 전제가 되는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敵의 침략기도를 봉쇄할 전쟁억지력의 확보는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최우선의 先決과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空軍사관학교제31기졸업식및 任官式에 참석, 諭示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더우기 간교한 北韓공산집단은 개방사회인 우리의 헛점을 노려 後方교란을 획책하거나 기습공격을 감행하기위한 공작에 血眼이 되고있기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敵의 공중을 통한 침투와 공격을 분쇄할수 있는 완벽한 領空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작년에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전투기 「制空號」를 實戰에 배치했으며 F16機등 최신전투기의 早期도입추진과 早期警報체제의 혁신으로 적의 어떠한 공중도발도 저지, 섬멸시킬수있는 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전쟁은 궁극적으로 무기의 대결이 아닌 사람끼리의 싸움이며, 따라서 사람의 의지와 능력의 優劣이 勝敗를 가름하는것』이라고 전제, 『최신장비나 항공기의 숫적우세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국가관과 필승의 신념, 그리고 고도의 戰術戰技를 지닌 장병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힘이 발휘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졸업생여러분은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나가야하겠다』고 강조하고 『졸업생들은 軍지휘관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부대를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수있도록 생산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空軍부대 시찰

【空軍 ○○기지=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31일하오 大邱시청순시에 앞서 空軍○○기지에 들러 장병들을격려하고 北傀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美電信電話社 회장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31일 상오 찰즈·브라운美電信電話회사회장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崔順達체신부장관과 具滋暻럭키그룹회장이 배석했다.

燈油·輕油값 내려야

民正촉구、국내油價 조정때 2%정도

民正黨은 31일 국제原油價인하에따라 인하폭중 30%만 국내油價에 반영하면서 이를 모두 나프타와 벙커C油인하에만 반영토록한 방침을바꿔 서민용 燈油와輕油가격도 2%인하 조정할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鄭石謨정책위의장은 이날 하오徐相喆동자부장관을당사로초치, 原油價인하에따른국내油種간의 가격인하문제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下分30% 모두를나프타와 벙커C油인하에서 사용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燈油와 輕油값을 내리지않도록 한것은 납득할수없다』면서 『특히 지난2월6일 국내油價를 인하하면서 燈油와輕油는 오히려 1.7%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油價조정과정에서 나프타와 벙커C油의인하폭을 다소줄이더라도 燈油와輕油를 2%인하하여 서민들에게 3백50억원의 혜택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의장은 또 앞으로原油價가 계속떨어질경우 인하폭 모두를 국내유가에 반영토록할것도 정부측에 요구했다.

변태課外 되살아나

특별團束要員 고정配置

社會淨化委

정부는 최근 교육환경변화에 편승, 콘도미니엄과외, 위장학원과외, 대학생입주과외, 현직교사의 그룹과외등이 다시고개를들고있다는 여론에따라 이같은 비밀과외를 또한번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31일상오 10시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金聖鎭)에서 내무 문교 문공 대검찰청 치안본부 국세청 학습참고서발행자율협회 등 13개관련부처및 단체의 연석회의를 열고 4월부터 이같은 비밀과외를 집중단속하도록 시달했다.

이날회의에서 사회정화위원회가 시달한 단속지침에 의하면 아파트밀집지구와 고소득층의 주택가등을중심으로 과외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지정, 특별요원을 1명씩 고정배치해서 첩보활동을 벌이게하고 현재 경찰서단위의 단속전담반에게 실적에따라 특진·포상등 과외단속을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중단속하게될 과외는 ▲외유형을 보면 ▲대학생입주과외 ▲하숙생·친척을가장한 과외 ▲사설학원의 재학생지도 ▲학습지 카세트를이용한 과외 ▲현직교사의 특별지도 ▲방학을 이용한 콘도미니엄 과외 ▲외국어·예능계 등록교습소의 과외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과외관련자는 교사·학부모·학생을 가리지않고 엄단하되 전원명단을 작성, 특별관리를실시하고 과외사실을알고도 묵인하는 공직자는 가중처벌할방침이다.

또 정부는 과외와 관련하여 면직된 학부모의 복직여부도 조사, 사례가 드러나면 본인은물론 이를 허용한 해당사업자도 처벌하기로했다.

民正 중견黨職 개편

黨총재 비서실장에 沈相宇의원 임명

윤리委長 金淑鉉·재정委長 金容大씨

◇沈相宇비서실장 ◇金淑鉉위원장 ◇金容大財政 ◇朴東鎭平統 ◇李榮一본부장 ◇李珍雨史觀 ◇朴在鴻災害 ◇任哲淳소장

平和統一委長	朴東鎭
意識개혁본부장	李榮一
民族史觀委長	李珍雨
災害대책본부장	朴在鴻
國策연구소장	任哲淳
副총무 首席	尹國老
〃 홍보	南在斗
〃 입법	李致浩
〃 운영	丁時采
〃 黨務	許清一

民正黨은 31일 하오 중간및 下位黨職개편을단행, 黨총재비서실장에 沈相宇의원, 倫理위원장에 金淑鉉의원, 財政위원장에 金容大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평화통일위원장에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 의식개혁본부장에 李榮一중앙정치연수원장, 民族史觀정립위원장에 李珍雨, 중앙災害대책본부장에 朴在鴻, 國策연구소장에 任哲淳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吳世應정무1장관, 尹碩淳·李相宰사무차장, 朴鉉兌정책조정실장은 모두 유임되었는데 朴정책조정실장은 정책위수석부의장을 겸임하도록했다.

民正黨은 黨憲개정에 따라 當然職中執委員인 黨5役외에 吳정무1장관, 沈相宇총재비서실장, 金淑鉉윤리, 金容大재정위원장, 尹碩淳·李相宰사무차장, 金璐泰대변인, 朴鉉兌정책조정실장과 宋志英·金賢子·南載熙의원등 11명을 임명했으며 中執委 상임위원으로 黨5役(당연직)외에 吳정무1장관과 沈총재비서실장을 각각 지명했다.

民正黨은 또 원내부총무에 尹國老(首席)、南在斗(홍보)、李致浩(입법)、丁時采(운영)、許清一의원(黨務)·議員室長겸임)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이날발표된 중앙위부의장과 정책위부의장은 다음과같다.

▲中央委 부의장=朴潤鍾 李建鎬 朴泰俊 李範俊 黃寅性 具龍鉉 洪鍾旭 李潤子의원.

▲정책위 부의장=朴鉉兌(수석) 黃炳晙 柳尚昊 崔永喆 千永星 林芳鉉 崔相業 李憲琦의원.

◇沈相宇총재비서실장略歷=▲전남光州·45세▲美國몬태나州立대학·全南大대학원 수료▲全南大경영대학원강사▲全南每日신문사장▲IPU 회원▲국회文公委간사

◇金淑鉉윤리위원장=▲경기仁川·64세▲日本와세다大卒·철학박사·변호사▲檀國大교수▲8代의원▲韓日친선협회중앙회부회장▲국회法司위원장.

◇金容大재정위원장=▲강원原州·50세▲檀國大卒▲대한傷痍軍警회장▲세계재향군인연맹이사▲大新기업대표▲올림픽지원특위위원

◇朴東鎭平統위원장=▲大邱출신·60세▲日本中央大法科卒▲外務部儀典局長▲외무차관▲駐越·제네바、유엔대사▲외무부장관

◇李榮一본부장=▲全南光州출신·45세▲서울文理大정치학과卒▲東洋通信기자▲統一院 교육홍보 실장·統一研修所長▲중앙당 청년국장▲중앙정치 연수원장

◇李珍雨史觀위원장=▲慶北浦項출신·49세▲서울法大卒▲제10회 高試司法科 합격▲檢事·변호사▲입법회의의원▲民正黨政策委의장▲慶北道支部위원장

◇朴在鴻災害대책위원장=▲慶北善山출신·42세▲高麗大法科卒▲浦項製鐵행정실장▲東洋鐵管·利川금속대표이사및 회장▲마을金庫 경북지부장

◇任哲淳국책연구소장=▲서울·46세▲美아이오와大卒·경제학박사▲유네스코한국위원▲永信아카데미이사장▲中央大교수·총장·재단이사장

國會 11常委長교체

民正黨은 30일 하오 국회의장에 蔡汶植부의장을, 부의장에 尹吉重의원을 內定하는 등 국회正·副議長과 常任및 特委위원장에 대한 人事개편을 단행, 발표했다.

民正黨은 이날 13개常任위원장과 2개特別위원장중 李鍾贊총무가 자동兼任하게 될 운영과 金永先국방위원장 및 李世基 올림픽特委 위원장을 제외하고 全員交替, 외무위원장에 權正達, 내무위원장에 李海元, 農水産에 金湜, 保社에 李贊赫, 交遞에 鄭東星, 建設위원장에 朴權欽의원을 각각 內定했다고 金璐泰대변인이 발표했다.

民正黨은 또 法司위원장에 韓柄寀, 文公위원장에 鄭在哲, 財務에 柳瓊賢, 文公에 ... 經科에 ... 豫決위원장, 商工에 裵命國, 건설위원장, 豫決위원장에 金宗鎬, 내무위원장을내정, 水平이동을 단행했다.

政治的책임 묻기로

民韓、金根祖씨사건

民韓黨은 경찰의 수사도중 숨진 韓一合纖이사 金根祖씨 사건과 관련, 경찰행정책임자의 책임은 물론 그이상의 정치적책임도 묻기로 黨內의견이 집약됨에따라 盧泰愚내무부장관의인책을요구할움직임을 보이고있다.

林鍾基총무는 31일 『경찰행정책임자이상의 정치적책임자는 내무부장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주 당무회의에서 논의케 될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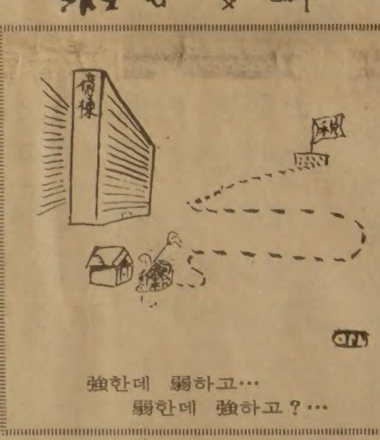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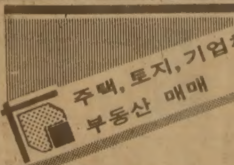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세번이나 옮겼다는 것은 현모의 귀감으로 널리 사람입에 오르내리는 얘기다. 비단 중국에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어진 어머니의 일화는 얼마든지 있어 왔다.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의 어머니도 그 한 본보기이다. 가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의 대성을 위해 떡장사를 했던 석봉의 어머니는 호롱불을 끈 어둠속에서 가래떡을 썰어 보이면서 그 지런한 것을 보임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노력의 보람을 깨닫게 함으로써 마침내 당대 명필이 되게 했다는 얘기다.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는 자녀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학부형과 자모가 집중적으로 정성을 쏟는 학문적인 풍토를 이어 오고 있다. 한데 이런 풍토가 근래는 고학력과 학벌이 사회 생활에서 우위의 기반을 차지하는 현실과 함께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급기야는 과열 과외의 폐단을 빚고 교육망국의 소리마저 일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치맛바람과 과잉과외의 열풍에서 대학을 우골탑으로 부르게 되는 따위의 세태로 변하게 하였다. 이는 지난날의 어버이들이 자녀교육에 쏟은 순수한 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아니라 그 지나친 병폐들이 비교육적인 사회문제로까지 치닫아 끝내는 그단속·시정이 관수적 급선무로 제기 되게 됐다. ▼그래서 착수되었던 과외수업의 근절책은 그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이제 그 심한 과열 현상은 진정이 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상을 되찾은것 같다. 동시에 과외와 상관지어졌던 이른바 교육망국의 소리도 역시 잠잠해 진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선 비밀·변태과외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교복 자유화 물결을 타며 다시 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는 오늘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잔존비밀·변태과외에 철퇴를 가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가 만우절의 한때 우스개가 아닌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겠다.

許三守씨 어제向美

許三守 前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은 미국하와이에 있는 東西문화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기위해 31일 저녁 KAL편 出國했다.

社會漫評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SAI WOO

영업시간 :
11 : 30am.
2 : 30a.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社說

議政原理 빛내도록
—국회要職人選과 우리의念願

우리의 주변정세에 심상찮은 亂氣流마저 관측되는 중요한 시기에 11代國會의 후반 2년을 이끌어나갈 立法府진용의 대폭改編이 사실상 매듭지어진 셈으로 되었다. 民正黨은 30일 國會의장에 蔡汶植현부의장을, 부의장에 尹吉重의원을 內定하는 동시에 13개常任委員長중 11명을 교체하는 國會요직 人選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오는 4월11일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돼 院구성을 마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執權다수黨의 요직개편이므로 이미 결정된거나 다름이 없다.

우선 議長團의 人選내용을 볼 적에 正·副의장內定者가 모두 前野圈출신이며, 政治경력이 풍부하고 對人관계도 원만한 편이라고 알려져있다. 民主的 對話창달과 與野和合을 통한 政局安定에의기여를 기대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올가을 IPU(국제의회연맹)총회의 서울개최에 대비하는 의원外交 강화의 배려도 깃들인것으로 관측된다.

그밖에 常任委員長인선은 改革主導勢力과 구시대 與野에 걸친 「3結合」의 조화성이 느껴진다. 이번 人選의 기준에 관해서는 單任정신,순환補職,기회균점,전문성등이 두드러졌으며 지역안배도 고려된것 같다. 지역구출신 優待가 돋보이는 다른한편 전국구출신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듯 하다. 85년 總選에 견주어 의미있는 조직을 갖추게 한다.

총체적으로 與黨의 國會 要職 改編은 무리없는 「원활한 運用」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섬길 시킬수 있겠다. 구시대 執權黨의 國會人的構成에 보는 獨善獨走나 官僚化경향내지 「行政府의 侍女化」등 편향이 말끔히 가셔지기 바란다.

하나 그러한 새作風의 실천은 결코 「관록」이라든지 「기교」의 발로일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것은 原理原則의 준봉이고 그 基幹으로된것이 곧 議會民主主義의 定着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代議制民主政治의 條件으로는 국민적 同質性에 입각한 與野간의 극한적 對立意識의 완화, 국민經濟의 安定, 이에따른 관용과 雅量, 外交와 國防등 주요國策문제에 대한 超黨的 국민合意가 자주 거론되고 있음을 본다.

이에 보태서 유난히 강조할것이 있다. 그것은 政治에대한 국민 關心의 줄기차고 온건한 健在이다. 만약 政治에 대한 無關心이나 不信風潮가 만연된다면 이는 慮外의 시각에 거센 사태를 초래할는지 모른다는 것이 政治史의 經驗的敎訓으로 삼기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國會는 언제나 民意의 다양한 代辯에 충실한 「가장 자유로운 言論의 府」로서 與野對話의 창달에 최선을 다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위해서는 비록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政治에 등을 돌린다든지 政治的으로 잠자고 있는 형편이어서는 분명히 안될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國政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제기는 院內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 토대위에 國會가 국민각계의 착잡한 利害와 다양한 견해를 調整하고 解決策을 탐구하는 공동의 광장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民主的 政局安定을 통하여 國家安保에 이바지하는 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릇 民主政黨의 발달과 議會政治의 定着은 不可分離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政治의 先進化」를 표방하는 가운데 民正黨이 黨職개편에 이어 國會要職人選을 마친 시점이다. 11代國會의 후반2년을 議會政治의 原理原則대로 향도함에 있어 괄목할만한 成果를 다져나가도록 격려하고싶다.

作業場에 危險없나
—남보다 높은産災率 放置말아야

엊그제 仁川에서 있었던 어느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평균1천명당 39명이 재해를 당하고있다한다. 이같은 재해발생률은 日本에비해 5배, 英國보다는 2배나 높다는 것이다. 또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직장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再活혜택은 너무 적은 실정인 모양이다.

이는곧 產災예방과 그 災害者의 再活을 도울 효율적대책을 촉구케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근래 몇해 동안의 자상한 產災발생률 상승 현상과 그 大型化추세는 이미 보도(한국일보 31일자 11면)된것 처럼 외면 할 수 없는 실상이다. 따라서 그 발생원인과 예방및 사후대책등에 관한 우리의 소견을 여기 말해두고자 한다.

우선 발표된 내용을 보면 鑛業분야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나고있다. 형태별로는 기계에 손발을 찢거나 다친 사례가 18.3%로 으뜸이고 무리한 동작 17.4%, 추락 12.5%, 낙하물에 의한 부상 12.2%의 순이다.

이런 실태를 살피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일부 업주들이 작업과정에 깔린 危險요소 처리를 소홀히 한데서 그같은 產災의 증가상이 따르지 않나 하는 점이다.

產災를 예방하려면 첫째로 낡고 不適한 시설구조물을 작업장에 방치하거나 法定安全기준 또는 工作物규정을 무시하는 따위 사례가 없도록해야 한다.

둘째 産業분야에서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학기술에 잘 적응할수 있게 安全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따른다. 예컨대 근로자들에게 각종 안전장치를 자신있게 다루며 計器를 정확하게 判讀할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셋째 종업원의 작업장 배치에서 適性을 착안, 살리게하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연장하여 과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不適한 職種에 종사하거나 피곤한 상태의 근로자들이 사고를 흔히 내는 때문이다.

네째 작업장의 환경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장내 각종기계의 안전장치에 허점이 없어야 할것이고 또 위험도의 判別을 방해할 정도로 騷音이 나거나 有害가스·惡臭·物의 냄새같은 것이 풍기지 않도록 防音및 換氣장치를 해야한다.

이러한 一連의 安全조치를 강구하려면 기업주들이 人命尊重意識에 가일층 투철함으로써 「利潤」보다 保安을 우선시키는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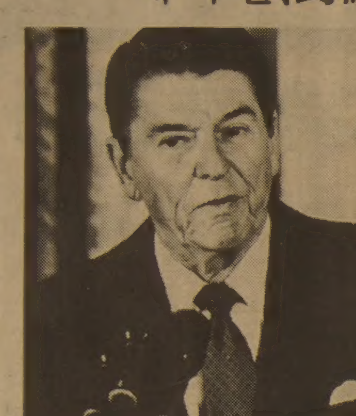
그와 더불어 사고에 대비한 작업장내 應急치료체제를 완비하고 產災를당한 근로자들의 再活대책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노동부통계에 의하면 73년~81년간 산업재해자중 직업재활대상자는 10%인 9만2천5백65명이었으나 실제로 직업재활에 들어간사람은 8천4백36명에 불과했다니 딱하다.

무슨 일이든 건전한 인력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할수록 근로자들이 危害없이 일할만큼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產災피해자들의 再活보장을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그 방책의 一環으로 정부는 재해예방 시설이나 應急治療체제를 完備한 업체에 혜택을 주어 타기업에 대한 勸奬효과를 거두게 했으면 한다. 보태서 전문지식을 지닌 담당요원을 늘려 산재예방에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야할 대목 역시 잊지 말았으면 한다.

중거리核 同數 감축하자

레이건、對蘇 잠정妥協案 제의

"전면철거 향한 첫발"



◇對蘇타협안 발표하는 레이건

레이건美대통령이 30일상오 백악관에서 전국TV연설을통해 유럽배치중거리核미사일에관한 잠정타협안에대해 설명하고있다. 【워싱턴30日AP電送=聯合】

【워싱턴AP·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30일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을 모두 철거하자는 종래의「零의選擇」案에서 후퇴,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미사일의 핵탄두수를 동등한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잠정타협안을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한국시간31일0시) 백악관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대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및 유럽에 중계된 TV및 라디오방송연설에서 그같이 제의했으나 핵탄두수의 구체적인 감축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레이건대통령은 단8분만에 끝난 연설에서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에 관한한『몇基라도 보유하는것보다는 모두 철거하는것이 훨씬 바람직하나 꼭 배치되어야한다면 숫자가 적을수록좋다』고 강조하면서 소련이『중거리미사일 전면제거를향한 의미심장한 첫발걸음』인 자신의 이제의를 거부하지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안이 소련이 단호히 거부하고있는 零의選擇案의 잠정대안이라고 말했다.

蘇、반응없어

【모스크바·런던UPI路透=聯合】美·蘇간의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을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레이건미대통령의 30일자 잠정타협안발표에 대해 소련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않음으로써 이제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추측을 자아냈다.

최신核航母 칼·빈슨號
美、日寄港 통고

【東京=宋孝彬특파원】미국정부는 30일 일본외무성에비공식으로 미국의 최신원자력항공모함 칼빈슨號(8만1천6백톤)를 오는6월하순부터 7월상순까지 요꼬스까(橫須賀)港에 기항시키겠다고 통고해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사세보(佐世保)항에 일시기항했던 엔터프라이즈號와 마찬가지로 칼빈슨號의 일시기항도 배치의 변경이 아니라는점에서 美日안보조약상 사전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아베·신따로(安倍) 일본외상은 지난달 衆議院예산위원회에서『만일 미국측이 최신원자력항공모함 칼빈슨號의 기항을 요청해 올경우 이에 응할생각』이라고 말한적이있다.

엔터프라이즈號의 사세보기항에 이어 칼·빈슨號의요꼬스까기항은 미국의 極東중시전략과 美日공동전략의 긴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이·시리아武力충돌
베이루트 郊外·베카계곡 2곳서

【베이루트·모스크바UPI路透=聯合】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전쟁이 올봄이나 초여름에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도는 가운데 레바논주둔 이들 두나라군대는 지난 4개월동안의 침묵을깨고 29일밤과 30일아침 베이루트교외와베카계곡등두지역에서 소화기를 동원, 무력충돌했다.

현지보도들은 이날 카메드·알·로즈주둔 이스라엘군과 불과 5㎞떨어진 술탄·야쿠브 지역주둔 시리아군이 충돌을 벌였는데 어느측이 먼저 도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챌린저 5일發射 카운트다운 준비順調

【케이프카나베랄(美플로리다州)AP=聯合】엔진의 연료누출과 적재화물오염으로인해 2개월이상 발사가 지연됐던 미국의 두번째 유인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제1차비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30일 시작됐다.

24시간안에 카타르海邊 덮칠듯
이란油田서 유출된 浮上석유층

【도하(카타르)路透=聯合】파괴된 이란유전에서 흘러나와 페르시아灣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대한 浮上석유층이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카타르해변을 덮칠것으로 보인다고 카타르 환경당국관리가 30일 밝혔다.

현지및 외국석유사고 대책전문가들은 페르시아灣 어장등에 막대한 피해를입히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등 페르시아만국가들을 위협하고있는 이석유층에 대처하기위해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水草지대와 공단주변에 석유 防災林을 세워놓고있다.

무바라크 極東순방

외신안테나

【카이로AP=聯合】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은 31일 취임후 처음으로 중공 북한 일본 인도네시아등 극동순방길에 올랐다.

무바라크대통령은 먼저 중공을 방문하며 이어 북한(4~5일)일본(5~9일) 인도네시아(9~11일)를 차례로 방문, 이집트외교정책의 균형과 경제개발에 필요한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對이란군사지원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스도가 波국민 힘의源泉"
敎皇, 聖年선포이후 최초의講論

【바티칸시티AP·UPI=聯合】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30일 聖베드로광장에서 聖年선포이래 최초의 강론을갖고 지난 2년간에 걸친 폴란드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상기시켰다.

바오로2세는 이날 강론중 폴란드가톨릭교회의 수호자인「쳉스토호바의 검은 마돈나」에 드리는 기도형식을통해『지난 2년간 역사에 기록된 폴란드국민의 고통과희생을 받아줄것』을 기구하면서 예수그리스도가폴란드국민의『힘의원천이자희망의상징』이 될것을 바란다고말했다.

蘇首腦部 마르크스업적추모 모두參席

【모스크바UPI=聯合】안드로포프당서기장등 소련권력구조의 정상급인 정치국원 8명이 작년12월 소연방창설60주년기념식이래 처음으로 30일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에서 개최된 카를·마르크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식에 모두 참석했다.

국회부의장 民韓、高在淸씨有力 곧內定

民韓黨은 民正黨이 국회要職의 후임자를 內定함에따라 곧 야당에 할애될 국회부의장의 후임자를 내정, 발표할예정이다.

民韓黨의 한소식통은 31일 지역按配와 정치경력·黨소속의원들의 여론등을 감안할때 高在淸원내총무가 가장 有力視된다고 말했다.

언론仲裁委員 改選
安又萬위원장 留任

문화공보부는 言論仲裁위원회 仲裁위원의 2년임기가 만료됨에따라 31일자로 38명을 새로위촉하거나 다시 위촉했다. 위촉된 중재위원들은 법원행정처가추천한 12명의 법관과 26명의 사회저명인사들로 24명은재위촉 나머지 14명은 이번에 위촉했다.

중재위원들은 이날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임시위원총회를열고 위원장에 安又萬현위원장을 재선출하고 부위원장에 崔彰鳳·金萬松위원을 각각 새로 선출했다.

이날 위촉된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제1중재부 ▲安又萬(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留) ▲李相回(연대교수·新) ▲黃石淵(변호사·新)

◇서울제2중재부 ▲文榮澤(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留) ▲鄭光謨(소비자보호연맹회장·留) ▲韓相福(서울대교수·新)

◇서울제3중재부 ▲李鐵煥(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留) ▲崔彰鳳(공연윤리위원장·留) ▲洪起宣(고대교수·新)

◇서울제4중재부 ▲高重錫(서울지법남부지원부장판사·留) ▲姜周鎭(방송심의위원장·留) ▲吳鎭煥(한양대교수·新)

◇釜山중재부 ▲宋敍憲(부산지법부장판사·留) ▲徐桂寶(부산대교무처장·留) ▲李伯雨(동아대교수·新)

◇大邱중재부 ▲裵龍光(대구교대학장·留) ▲李和雨(영남대통일문제연구소장·新)

◇京畿중재부 ▲金完基(수원지법부장판사·留) ▲金洙植(아주대인문사회대학장·新) ▲金應泰(인하대학원이사·留)

◇江原중재부 ▲李昌求(춘천지법부장판사·留) ▲朴寅澤(강원대사범대학장·新) ▲金萬松(강원대교수·留)

◇忠北중재부 ▲韓光世(청주지법부장판사·留) ▲朴正圭(청주대신문방송학과장·留) ▲李忠元(충청대사범대학장·新)

◇忠南중재부 ▲閔秀明(대전지법부장판사·留) ▲柳一彦(충남대학보처장·留) ▲閔庚大(대한적십자충남지사장·留)

◇全北중재부 ▲閔仁植(전주지법부장판사·留) ▲河在洪(전주교대교수·新) ▲李鎬揚(전주대조교수·留)

◇全南중재부 ▲金應烈(光州지법부장판사·留) ▲高昌鉉(朝鮮大법정대학장·留) ▲張奇連(민족통일협의회장·新)

◇濟州중재부 ▲林憲澤(濟州지법부장판사·留) ▲金斗熙(濟州大교수·新) ▲金泰鉉(변호사·留)

韓·이스라엘親善協 회장 金鳳鶴씨선출

韓國·이스라엘親善協會는 31일하오 창립총회를갖고 회장에 金鳳鶴씨(대한YMCA연맹이사장겸淸州銀行長)를 선출했다.

記協 새집행부구성
李肯珪현회장 留任

한국기자협회는 31일하오 한국경제신문사 강당에서 제1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3대회장에 李肯珪현회장(京鄕新聞심의부차장)을 유임시켰다.

이밖에 이날 선출된 신임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부회장=洪誠浩(中央日報외신부차장)、洪性玫(KBS외신부기자)、鄭信模(서울신문경제부기자)、朴啓仁(釜山日報사회부차장)、金喆奎(全北新聞사회부장대우) ▲감사=文重信(韓國經濟사회부기자)、鄭炳賽(MBC보도제작부기자)

유네스코 定期總會
위원장 李文敎유임

유네스코韓國委員會는 30일오전 제32차 定期總會를 열고 오는 10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2차 유네스코총회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83년도 주요사업으로①亞·太지역및 아프리카지역과의 國際協力강화②한국문화와 전통의 해외보급확대 ③最新理論 국내도입및 土着化④청소년의 자기개발및 국가발전에의 기여촉진 ⑤未修交國과의 교류증진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울 明洞에 있는 유네스코빌딩 국제회의실에서 各界代表 44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32차총회는 委員長에 李文敎 문교장관을 유임시키는등 다음과 같이 任員陣을 선출했다.

▲副委員長=鄭泰秀(文教次官)、盧載源(外務次官)、許文道(文公次官)、金容漢(科技處次官)、權彝赫(서울大총장) ▲事務總長=朴奉植 ▲教育分委=委員長 張仁淑(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副委員長 孫宗西(한국사회교육협회장) ▲社會科學分委=委員長 鄭允武(東國大행정대학원장) 副委員長 金麗壽(서울大교수) ▲自然科學分委=委員長 金鳳均(서울大교수) 副委員長 韓秉勳(서울大生藥研究소장) ▲文化分委=委員長 宋志英(韓國文化藝術振興院長) 副委員長 李大源(弘益大교수) ▲弘報分委=委員長 鄭宗植(연합통신사장) 副委員長 崔鳳順(梨花女大도서관장)

◇마냥 자랑스런 시험관쌍둥이

美최초의 시험관 쌍둥이의 부모가 뉴욕주 맨하셋市에 있는 노쓰쇼어 대학병원을 떠나기에앞서 생후5일된 그들의 쌍둥이를 선보이고있다. 【맨하셋트AP=聯合】

海外토픽

「外界賢人 메시지」전하다 鐵窓行
★蘇、50대 요가교사에 강제노동刑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금년 55세의한 여성 요가교사가 최근「외계賢人들의 메시지」를 유포한뒤 소련국가·사회체제를 비방한죄목으로 2년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녀의 친구들이 폭로.

마야·플리아다라는 이름의 요가교사는 우랄출신의 화가 레오니드·감킨이 펼쳐보이던「외계의 현인들」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표현한 그림 80여장과 메시지를 그녀의 요가 수련생들에게 배포했다는것. 메시지는 인류가 죄악에서 벗어나지않으면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경고하면서 채식주의와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UPI】

「다나까」 이름싫다
10代개명신청 승인

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榮) 前日本수상(64)이 지난 1974년 사임한후 록히드 뇌물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재판을 받게되자 그와 똑같은 성과 이름을 가진 12살난 한 소년이 지난 수년동안 급우들의 조롱을 받아온데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일본서부 고오베(神戶)항의 가정법원은 이날 가꾸에이라는 이름이 그동안 이 학생에게『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인정, 호적법에따라개명을 할수있다고판결했다. 【UPI】

內外動靜

▲李載澐 前 民正黨대표위원은 日本東京의 병원에 입원중인 부인을 돌보기위해 약 10일간 예정으로 1일 出國.

▲金鍾哲국민당총재의 공식수행원으로 약 한달동안 訪美했던 金鍾河 金永光 두의원이 31일하오 귀국했다.

人事異動

文公部 ▲宗務官(3급상당) 朴贊度 ▲〃 李勇夫 ▲〃 李永福 ▲顯忠祠관리소장 李漢洪(宗務행정과장) (1日字)

工振廳 ▲品質管理局品質管理課長 金榮助 (30日字)

畜協中央會 ▲城州組合長 池光雄 ▲江華〃 南譽煥 ▲春川〃 蔡基鏞 ▲高城〃 李丙吉 (1日字)

本社來訪

▲姜周鎭씨(한국문화원연합회장) ▲崔台熙씨(同부회장) ▲朴榮出씨(〃) 許讚宗씨(同사무총장) ▲金春顯씨(서울信託銀行 安國洞支店長) 신임인사차

政局往來

"모든 功過는 85년선거서 판가름 날것…행정부도 열심히"

◆黨의견 99%국민소리로 알아달라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은 31일하오 吳世應총무와 李鍾律중앙위원으로 金相浹총리를 방문, 약15분간 취임인사를 겸해 앞으로의 黨政협조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陳대표는 이자리에서『全黨大會를 축하해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金총리도『黨과 국회가 새로운 要職을 개편, 분위기가 새로와졌으니 무척바쁘시겠다』고 대답.

陳대표는 이어『우리黨도 2년만에 전당대회를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해 무얼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모든功過는 85년선거에서 판가름날것이므로 우리도 단합하여 일할터이니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

그는 또 黨政협조와 관련,『행정부와 黨政협조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99%는 국민의 소리로 알고 이해해 달라』고 말하자 金총리는『기탄없이 얘기해달라』고 대답.

陳대표는 이에앞서 이날상오 兪泰興대법원장을 인사차 禮訪했다.

◆中蘇和解 한국에 惡영향없을듯

金相浹국무총리는 31일상오 키신저前美국무장관의 예방을받고 국제정치학자답게 세계문제에관해 의견을 교환.

金총리는 미국정부의 對韓안보인식과관련,『미국이 과거와달리 최근엔 한국의안보가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점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키신저박사는『전적으로 同感이다. 한국의 안전이 곧 미국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

키신저박사는 中蘇화해움직임에 대해『中蘇양국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기때문에 양국간의 和解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것인지는 미국과 한국이 조용히 관찰해야 할것』이라고 말하면서도『양국간의 화해가 한국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展望.

키신저박사는 또『한국에대해 참고가될 좋은얘기를 해 달라』는 金총리의 주문에『잘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이미 설정된 원칙과 정책을 固守、견지해 나가면 될것』이라며『敵이 가까이에 있는데도 잘대처해 가며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세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다』고 대답.

◆中堅人事案 새어나가자 警擊발표

國會職을 당초예정보다 하루앞당겨 발표했던 民正黨은 30여명에 달하는 중견및 下位黨職개편도 예정보다 당겨 31일하오 갑자기 발표.

30일 이미 고위층으로부터「裁可」를 받아놓고있던 民正黨은 人選내용일부가 밖으로 새어나가자 이날 하오1시30분께 陳懿鍾대표위원, 權翊鉉사무총장, 金瑢泰대변인등이 모여 熟議한끝에 이날 발표키로 결정.

金대변인은 人事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異例的으로 人選原則부터 설명하면서『전반기에 국회상임위원장과 市道지부위원장을 지낸 重鎭들을 중앙위와 정책위에 배치한 것은 이들 기구의 활동을 강화하기위한조치』라고 밝히면서『사무차장과 정책조정실장을 유임시킨것은 중앙당사무기능이 더욱 확고히 뿌리내릴 필요가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상오 중앙당사에는 국회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된 의원들이 대거 몰려와 당직자방을 순례하며 인사하느라 붐비는 모습.

◆『過去 잊지말라』警告주고싶어

柳致松民韓黨총재는 31일 여당의 국회 要職 內定에 대해『남의 인사에 예의로라도 잘됐다고 해야 할게 아닌가』고말하면서도냉랭한반응.

柳총재는 民韓黨측 부의장은 언제 인선할 것이냐는 물음에『우리야 급할 것이 없다』『국회요직은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인데… 국회를 점점 무시하는느낌…』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李泰九부총재는『의장단은 야당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을 사람으로 모두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라 잘하리라 기대한다』고 했고 辛相佑부총재는『야당의 受難史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묵살되는 일은 없을것으로 믿는다』고 전망.

특히 林鍾基총무는 새의장단에 대해『과거를 잊지말라고 부탁하고싶다.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쓰라림을 현재의 야당이 받고 있다는 警告를 주고싶다』고 말하기도.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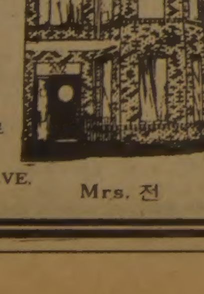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술면허를 취득했읍니다.
ㅁ맥주 1불 ㅁ정종 ·와인등

오뎅백반	$2.95
칼국수	$2.95
우동	$2.95
짜장면	$2.95
김밥	$2.50
흰만두	$2.95
곰탕	$2.95
비빔밥	$2.95
불백	$4.95
갈비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두국	$2.95
떡국	$2.95
떡만두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닭	$4.95
1/2 닭	$2.95

☎ 537-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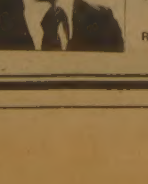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7DAYS A WEEK. 11시~새벽1시

이대환 不動產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햄버거숍 : 주매상 $12,000, 렌트 $3,500, 아스킹 $35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2+3+5, 아스킹 $239,000



세일즈맨 신영하
(R) 423-3114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搜査체계 너무 복잡"

지휘혼란등 副作用

특별수사 남용… 人權침해도

지휘권 檢察로 單一化해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가 너무 복잡하다.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다원화돼있고 상급기관이 많아 지휘체계도 분명할수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할권 시비」나 「수사지휘 미흡」등의 부작용이 생길 여지도 많아진다.

이같은 부작용은 인력이나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등 오히려 법질서에 균형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케한다.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이 많은것보다는 적은법률을 잘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듯이 수사기관을 많이두는것보다 최소한의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일관성있게 활용하는것이 절실하다』고 지적, 일관성을위한 「수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시기가 왔다고 주장하고있다.

검찰의경우 서울, 釜山등 대도시 지검에 특수부가있고 大檢에도 특수부 (중앙수사부)를 두고있다. 이들 「특수부」는 정치, 경제, 사회여건이 복잡다양해지고 각종범죄도 더욱 지능화되고있는 추세에 대응, 전문검사를 두어 수사에 응한다는것이 당초 설립취지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특수부는 필요할때만 구성된다는점을지적, 大檢이 각지검을 충분히 활용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있다.

수사기관의 다원화는 수사지휘권활용에도 어려움을 남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지휘권은 검찰만이 행사할수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이 검찰의지휘를 충분히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례도 생긴다. 물론 검사가 파견되기도하지만 검찰수뇌부가 모르는사이 수사가진행될수도 있는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말썽을 빚고있는 치안본부수사대 金萬熙경위의 金根祖씨 폭행치사사건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충분히행사되지못해생긴사고가 아니겠는가고반문한다.

우리나라형사소송법제1백95조에는『수사의 주제자는 검사』라는 대원칙을 규정, 수사지휘권이 검찰에게만 있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다만 검찰의 기능수행을위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하는 일반사법경찰관과 보사부마약 담당직원, 전매청·산림청직원등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도록 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 이같은규정은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못하는 소위 「특별수사」가 흔히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경우 현재 치안본부에는 수사1과 소속으로▲일반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대」와 ▲특수사건을 다루는 「특수수사대」가 있다. 법규정상 이들수사대는 서울지검의 지휘를받아야한다.

그런데 특수수사대는 검찰과의 지휘관계가 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있다는평을받는다.

이번 金根祖씨폭행치사사건만해도 지원나간 金萬熙경위등 3명은 서울지검특수부에 범죄수사착수보고조차 하지않았음이 밝혀지고있다.

이처럼 수사지휘체계가 단일화돼 있지않기때문에 수사권이없는 정부기관에서 조차 직무범위를 벗어난 수사를벌이는 사례까지 생기게된다.

미계통에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있고 수사권이 검찰에만있는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사법경찰이 완전히 검찰의통제하에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단일화돼있으면서도 수사지휘를받는 사법경찰관이 내무부의지시를 받게되기도 한다. 또법규정에도없이 여러「기관」들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기도한다.

법조인들은『이처럼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충분히」행사하지 못할경우 탈법수사의 병폐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수사지휘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崔圭植기자】

진도개 怪疾수난

3년새 6천여마리죽어

【木浦】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전남 진도개가 병에 걸려 해마다 죽어들고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31일하오 珍島郡에 따르면 지난81년여름 珍島郡 義新面에서 생후 6개월미만의 새끼개들의 눈에 눈곱이 끼고 충혈되면서 2천여마리가 죽은것을 비롯, 82년에도 같은 병으로 2천2백여마리가 죽었고금년들어서는3개월동안 무려 2천여마리가 죽었다.

이에따라 서울대수의대 韓弘栗박사와 농촌진흥청 安養가축위생 연구소 李英鉉박사등 2명이 지난29일부터 珍島에내려와 죽은개의 가검물채취와 혈청등을 채집조사중인데 이조사결과는 4월중에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진도개들이 이처럼 원인을 알수없는 병에걸려 죽어가고있으나 현지에는 전문 연구기관등이 없어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주민들은 기생충이나 풍토병등에의해 죽은것으로만 생각해오고있다. 【韶】

우수택시會社 2백33개 指定

大型化위해 增車·部制운행 철폐등 혜택

交通部

전국 2백63개 택시회사가 우수업체로 지정돼 각종혜택을 받게됐다.

교통부는 31일 택시회사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 1천8백80개 택시회사중 2백63개 회사를우수업체로 지정했다.

교통부는 앞으로 우수업체로 지정된 택시회사에만▲증차를 허용하고 ▲부제운행을 철폐해주며▲일제점검을 비롯한 각종서비스점검을 면제해주는 한편▲회사의 대형화를 위해 다른 회사의 양수에 편의를 제공하는등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수업체 지정작업은 교통부가 지난해 낙후된 택시경영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월급제와 더불어 개선책으로 도입, 올해 처음 지정한 것인데 심사기준은 주로 회사시설과 종업원복지시설을 중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운전사월급제실시상황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교통부는 올해 택시증차대수를 약 7천2백대로 잡고있는데 이중 개인택시 증차분 4천여대를 뺀 3천여대는 이들 2백63개업체에만보유대수비율로 배정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우수업체로 지정된 택시회사라도 자격요건에 다시미달되면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신청자체를 못하도록 했다.

시도별 우수업체지정 현황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총업체수)

▲서울=28(266)▲부산=44(155)▲대구=26(125)▲인천=8(65)▲경기=18(158)▲강원=11(129)▲충북=10(59)▲충남=23(180)▲전북=16(105)▲전남=22(301)▲경북=3(90)▲경남=24(195)▲제주=3(22)

旅券발급審査 강화

「5년複數」대상축소·招請경위 事前확인

외무부는 31일 81년8월이후 실시해온 해외여행자유화조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여권법시행세칙을 개정, 여권발급업무가 지방청으로 이관되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시행세칙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발급 대상자를▲무역, 건설, 항공, 해운 업체중 거래액이 연간 1천만달러이상되는 靑色업체의 임직원▲빈번한 해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타 대외 거래상사 임원▲직책상 대외문화교류를 위해 빈번히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학술 문화계인사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밖의 사람들에겐 유효기간 2년의 복수여권이나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으로되어있다.

이세칙은 또 초청장에 의한 해외여행자와 단체여행자에게는 단수여권만을 발급하고 단수여권에 필요한 귀국서약서의 보증인도 3촌이내의 근친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억제하기 위해▲단체여행의 경우 초청장의 공관확인을 요건화하고 국제회의 참석자활동계획을 심사하며 ▲친지방문여행에는 초청장의 입수경위및 경비부담 의사를 사전확인하는 한편 30세미만의 미혼여성의 심사를 강화하고▲부부동시여행은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초청이 있는 경우와 단체의장 또는 인솔자등 극소수만을 인정하는등 심사기준을 엄격히했다.

외무부는 또 종전에는 일단 5년유효기간의 여권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발급후 소속단체나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그여권을 유효한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소속단체나 회사를퇴직하면 단체나 회사가 여권을 회수토록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5인이상의 단체여행자에대한 심사는 외무부여권과가 직접 관장키로했다.

졸업定員制로 탈락한 8百76명중

百10명이 放通大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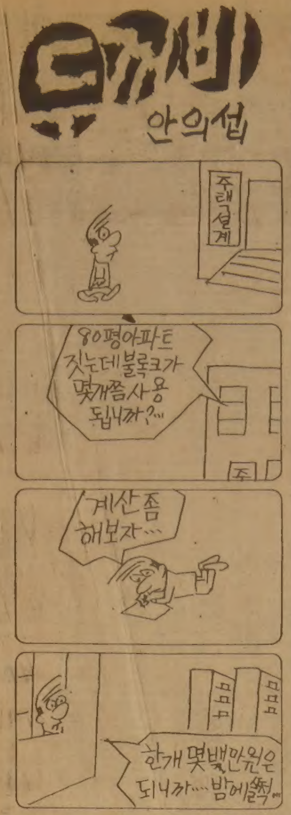
올해 졸업정원제로 중도탈락된 전국의 대학생 8백76명중 1백10명이 방송통신대에 편입했다.

방송통신대학은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탈락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원서를 받았는데 마감결과 28개대학에 모두 1백10명이 지원, 이들을 전원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편입생들을 대학별로 보면 효성여대에서 탈락한 학생이 17명으로 가장많고 한양대·계명대가 각각9명, 부산여대·건국대 각7명, 이화여대 6명,청주사대·경희대·강원대·공주사대·고신대등이 각 4명이었다.

한편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탈락한 학생중 방송통신대학에 편입원서를 낸 학생은 한명도없었다.

탈락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으로 편입했고 28명만 2학년으로 편입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特許品 모방 業主를 立件

【釜山】 釜山鎭경찰서는 31일 남의 특허품을 모방, 제품을생산판매해온 陳富貴씨(41·大邱市東區芳村洞863)를 실용신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陳씨는 대성섬유공업사란 상호로 메리야스및 양장지 제조업을하면서 지난2월3일 釜山鎭區富田2洞224 동일직물 대표 노동우씨(51)가 낸 특허품인 메리야스와 동일한제품을 지금까지 3천kg(싯가 1천6백50만원)을 생산,이중1천7백kg(9백60만원상당)을 서울東大門시장내 수도직물에 팔았다가 노씨의 고발로 경찰에 입건됐다. 【韶】

住民99명 食中毒

8명은 아직앓아

【咸平】 전남咸平郡孫佛面石倉里 주민99명이 지난27일 집단으로 설사 구토 복통등의 증세로 앓아오다 이중 91명은 완쾌되고 31일 상오 현재 8명은 계속 자기집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韶】

◇캠퍼스의 봄 캠퍼스에도 봄의 전령이 찾아왔다. 활짝 피어난 산수유의 향내속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걸음걸이는 경쾌하기만하다. 【31일상오慶熙大에서 朴泰弘기자찍음】

「토끼놀이」 집중團束

射倖행위로 오락실주인 1명立件

속보=서울시경은 31일 슬로트머신을 변형한 신종도박 「토끼놀이」업소(한국일보 3월29일자11면 머리기사)에대한 집중단속에나서 서울鍾路區崇仁洞183의22 새서울오락실 주인 徐炳一씨(25)를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시경은 이날 각경찰서별로 기습단속을 폈는데 나머지유기장허가를받은 「토끼놀이」업소는 모두 휴업을해 단속을하지못했는데 영업을 재개하는경우 업주를 형사입건하는반면 관계당국에 허가취소를 건의하기로했다.

이날 시경의 단속결과 13개 유기장허가를낸 「토끼놀이」업소외에도 무허가업소가 더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無許여행사代表등 셋拘束

해외就業사기 강제送還사건

속보=런던에서 발이 묶였던 임병선씨(37)등 17명의 강제송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南大門경찰서는 30일 이사건과 관련, 무허가 여행사인 퓨마여행사 (서울鍾路區仁寺洞 제일빌딩 604호) 사장 姜明秀씨(40·서울城東區華陽洞1의22), 부사장 朴承福씨(51·경기廣州郡東部邑下山谷里301), 전무 金五永씨(34·서울中區光熙洞1街168)등 3명을 여권법, 직업안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P여행사 대표 任仁赫씨(30·서울江東區馬川洞358의14)와 모집책 房慶喜씨(35·경기議政府市金梧洞227)등 4명을 같은혐의로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여권브로커인 房씨와 任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2월19일 P여행사에서 피해자인 임병선씨등 17명에게 미국에 채소다듬는직종에 취업시켜 준다고속여 1인당소개비 2백만원과 항공요금 1백50만원씩을받아 가로챈 혐의다.

任씨와 房씨는 우리나라에서 미국비자발급이 어려운것을알고 이들을일단 런던으로 데려간뒤 미국입국비자를 얻으려다가 실패, 피해자들이 런던에서 발이묶였던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賞 李宣鎬소위

空士 졸업·임관식

공군사관학교31기 졸업·임관식이 31일상오 全斗煥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 군고위장성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대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졸업생가운데 李宣鎬소위(25·原州高출신·사진)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5行뉴스

◆鎭海군항제3일께절정

【鎭海】 李忠武公의 얼을 되새기기위해 군항제가 열리고있는 鎭海市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고있다.

30일 개막된 제21회 군항제는 4월2일 군항축제의밤과 3일 휴일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절정을이룰것으로 보인다. 【韶】

◆郡이하 국제電報 번역배달

통신공사는 1일부터 전국 군단위이하 읍·면·리로 배달되는 국제전보를 우리말로 번역, 영문과 함께 배달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의 가족·친지로부터 보내오는 전보내용이 외국어로 되어있어서 해독력이 없는 농어촌주민들이 내용을 잘모르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學閥·人脈을 캔다

최후의 新羅人

文化財연구소 趙由典연구관

先人의 얼찾아 아예 慶州에 定着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趙由典학예연구관(41·사진)의 육신은 現代를 살면서 정신은 新羅에 가있다. 천년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시대를 정확히 재조명 해내는것이 그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는 慶州고적발굴 조사단장등으로 자그마치 10년간을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感恩寺址 皇龍寺址등 신라유적발굴에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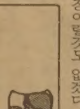
60년대말부터 新羅의 신비를오늘에 전했던 문화재치고 그의 손길을 거치지않은게 거의 없다. 「아직까지남은 新羅人」이라 해서 과장이랄것도 없겠다.

서울大 고고학과 출신인 그는 60년대말 문화재관리국에 몸을담았다. 마침 신라유적의 발굴붐이 불던때라 뻔질나게 慶州를 드나들게되었다.

73년3월 문화재관리국이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을 慶州에설치한후에는 아예 慶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걸음 한걸음 발걸음을 천년전 신라시대로 옮기기 시작했다. 155호 고분에서 天馬圖를, 98호고분에서 金冠을발굴, 찬란한 신라문화의 정수를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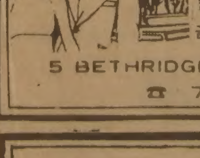
신라의 宮苑池인 안압지에선 이모저모 신라사람들이 쓰던 생활도구를 되살려보았다. 그때는 마치 신라시대에 살고있는듯한 착각마저 들더라는 후일담.

주춧돌밑으로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계한 感恩寺址에선 신라사람들의 호국정신을 느꼈다. 文武大王이 용이되어 왜구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하나의 전설만이 아님을 엿볼수 있었기 때문.



皇龍寺址는 신라문화의 규모를 짐작케하는 한 상징이었다. 경내에 있었던 건물이 현불국사의 8배에 달하고 금당앞에 높이80m의 목조 9층탑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함께 아쉬움이 가슴을 저미게 했다.

『왜 이처럼 찬란했던 문화가 후대까지 이어져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발굴의 의미를 더 살릴수 있을까』 그래서 발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발굴한 유적과 그곳에서 문화재에 담긴 신라인의 얼과 신라인이 오늘에 전하는 교훈을 보다 음미해야 한다는 마음에 요즘은 발굴의 손길이 무겁다. 新羅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李忠雨기자】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한국의 하나뿐인 여성週刊誌!
●단연 部數도 정상, 내용도 頂上!
주간女性
컬러畵報 立體편집
새 시대를 사는
현대 여성의 다정한 벗!
구독신청·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구독 신청서
(지방구독자 3불(우송료 포함))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프로야구 「제2幕」의 주인공은…

青龍-OB 해태-三星 롯데-三美 내일부터 2連戰

◇青龍 李源國

◇해태 朱東植

◇OB 金宇烈

◇三星 張孝祚

프로야구 기원 2년, 83년 시즌을 여는 개막전이 2일 하오2시 잠실구장에서 홈팀 MBC 青龍과 첫해 챔피언 OB 베어스의 대결로 벌어진다. 3일부터는 잠실에서 MBC―OB, 光州에서 해태 타이거즈―三星 라이온즈, 釜山에서 롯데 자이언츠―三美 슈퍼스타즈의 2連戰이 펼쳐진다.

프로야구 제2막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영예의 챔피언타이틀은 어느팀이 차지할것인가. 개막에 앞선 시범경기에서 6개팀들은 차분히 자체전력을 점검하고 상대팀을 탐색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승리에의 집념으로 6개팀들은 초반격돌부터 전력을 다해 뜨거운 불꽃을 튀길것으로 예상된다.

死活건 롯데 崔東原-第2의삶 三美 張明夫

好敵手 숙명의 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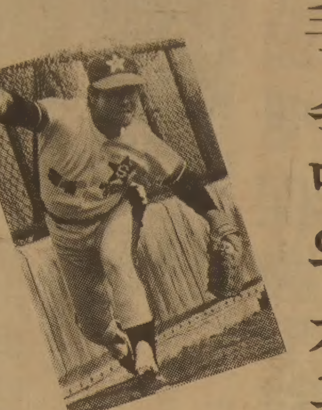
개막시리즈의 초점은 국내 최고의 투수로 지칭되는 崔東原(롯데)과 해외에서 영입한 거물투수 張明夫(삼미)의 대결. 3일과 5일 釜山에서 벌어질 롯데와 三美의 2連戰에서 이들 두에이스는 자신의 투수생명과 팀의 명예를 걸고 숙명의 대결을 벌이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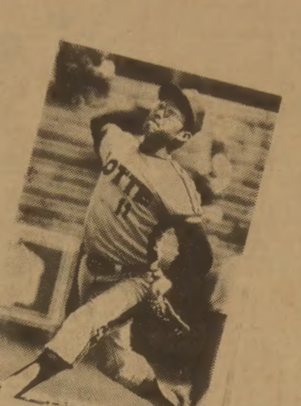
81년 延世大를 졸업, 아마추어팀 롯데에 입단한 崔東原은 실업야구 첫시즌에 기록적인 17승을 올려 80년 최하위팀이었던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어 올렸다. 右腕 崔東原은 81년 최우수선수, 다승리투수, 신인왕등 3冠王의 영예를 누렸다.

82년 崔東原은 국내프로야구의 탄생과 메이저 리그팀 토론토·블루제이스와의 계약등 안팎의 시련에 시달리며 3승2패1세이브, 방어율 8.65의 부끄러운 기록을남겼다. 78년이탈리아세계아마야구선수권, 80년 동경선수권, 81년 대륙간 컵대회등에 국가대표에이스로 출전, 한국야구의 명예를 드높였던 崔東原. 그는 83년 프로야구 첫 시즌에 투수로서의 死活을 걸고 있다.

在日同胞 張明夫에게는 국내프로야구가 제2의삶이다. 70년 巨人투수로 처음 日本프로야구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79·80년 히로시마·카프의 주전투수로 日本시리즈 2連霸에 공헌했으나 82년에는 3승11패로 노쇠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25세의 정동과 崔東原, 33세의 노장 張明夫. 둘 모두 시속 1백50km를 육박하는 스피드와 교활하리만큼 뛰어난 두뇌피칭을 보이고있다. 금테안경속에 번쩍이는 崔東原의 날카로운 눈빛과 어떤 위기에서도 빈볼을 던져대며 입가에 번지는 張明夫의 미소가 두호적수의 전력을 느끼게한다.


◇三美 張明夫


◇롯데 崔東原

해태-三星 컴퓨터朱東植-旗手 張孝祚 관심

莫強타선-노장 李源國 줄다리기 青龍-OB

光州에서는 해태의 기교파 투수 朱東植과 三星의 우승고지를 향한 기수 張孝祚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있다. 언더핸드의 在日同胞 朱東植은 컴퓨터처럼 정확한 볼컨트롤을, 張孝祚는 타고난 타격솜씨를 국내프로의 새무대에서 재평가받게된다.

해태『三星전은 金奉淵·金準桓·金一權·金城漢·金鍾模등 해태가 자랑하는 KKK타선과 權永浩·李善熙·黃圭奉등 三星의 베테랑투수진들과의 줄다리기가볼만하다.

홈팀으로 서울개막전을 준비하고있는 MBC 青龍은 李海昌·金在博등 국가대표주력타자들로 막강타선을 구축한데다 백전노장 李源國으로 마운드를 보강, OB와의 첫대전에 느긋한 태도다.

에이스 朴哲淳의 부상으로 기세가 꺾인 OB·베어스는 노장 尹東均·金宇烈을 주축으로한 안정된 타선, 그리고 金永德·金春根·李廣煥트리오의 용병술에 2連霸의 기대를 걸고있다. 【方錫絢기자】

페넌트레이스 6개월돌입…각팀司令塔 한결같이 자신만만

올해야말로 制霸찬스

◇三星 徐永武감독=팬들의 열화같은 성원을 생각하더라도 三星의 목표는 우승밖에 없다.

시범경기에서 다소 부진했다고하나 선수개개인의 테스트과정에 불과하다.

金鍾錫등 신진들의 보강으로 三星수비는 더욱 공고해졌다.

가장 걱정했던 타격도 張孝祚·金瀚根을 정점으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있다.

전기시즌에우승해서 코리안시리즈 제패를 노리겠다.

投手싸움도 안뒤진다

◇MBC 白仁天감독=마운드, 내야수비, 타격에서 모두 자신만만하다. 지난해 에러속출로 귀중한 게임을 놓치곤 했지만 금년 MBC의 수비망에는 물샐틈이 없다. 특히 대형투수 李源國과 신예 吳泳日등을 보강해 투수싸움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金在博·李海昌등 발빠르고 센스있는 우수선수들이 가세해 MBC는 더욱 뛰어난 기동력으로 종합우승을향해 달릴것이다.

시원한홈런타봉 자랑

◇해태 金應龍감독=해태의 자랑은 시원스러운 홈런타봉이다. 호쾌한 타격에 김을 빼는 자질구레한 작전을 쓰지 않겠다. 오히려 해태고유의 장타력을 살려 페넌트·레이스를 여유있게 달릴 생각이다.

타격에 비해 열세였던 수비가 새선수들의 보강으로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노장투수 朱東植의 기교와 신진 鄭平叔의 스피드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목표 脫최하위아니다

◇三美 金振榮감독=많은사람들이 1억짜리 투수 張明夫의 능력을 의심하고있다. 나역시 시범경기결과로 한때 회의에 빠졌었다. 日本프로에서 13년을 견뎌낸 張明夫의 깊은 속을 알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걸렸다. 나는 그가 83년 최고의 투수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李英求·金鎬雨·鄭求善·崔洪錫등 새로 입단한 선수들의 타격이 기대이상으로 좋다. 三美의 목표가 결코 脫최하위가 아님을 밝혀둔다.

야구는 投手의피칭서

◇롯데 朴永吉감독=야구는 투수의 피칭으로부터 시작되는 게임이다. 아마시절의 롯데나 프로첫해의 롯데나 모두 에이스투수없는 불안속에 시련을겪어야했다.

롯데는 이제 국내최고의 투수 崔東原을 확보했다. 盧相守·千昌浩도 더욱 잘 던질 것이다. 따라서 롯데의 강타선도 빛을 볼것이고 83년 전기에 롯데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打線만터지면 2連霸

◇OB 金永德감독=첫째 우승팀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야한다는 정신적 부담이크다. 23승을 올려주었던 에이스 朴哲淳의 부상이 OB의짐을 가중시키고 있다.

朴哲淳의 결장으로 이제껏 몸을 해주지않을까 기대한다. 주장 尹東均을 비롯한 타선이 지난해처럼 폭발해 준다면 2連霸도 가능하리라 본다.

大學야구

成均館·漢陽 "8強" 합승

신예 韓禧敏(成大) 3게임 방어율 1.04

◇헬멧만 안썼어도 仁川專門大―仁荷大전 7회말 仁荷大 7번 金東基의 유격수앞 땅볼을 틈타 3루로 뛰다 실패한 2루주자 尹康老⑤가 仁川專門2루수 金炳漢에 쫓기다 아웃되고 있다.

C조의 成均館大와 漢陽大가 延世大(A조)에 이어 대학야구 춘계리그 8강에 진출했다.

3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회6일째 경기에서 韓禧敏이 때투한 成均館大는 嶺南大와 2-2로 비겼으나 2승1무를 기록, C조선두로 8강에 올랐으며 漢陽大는 약체 釜山産業大를 3-0으로 꺾고 2승1패가돼 8강에 진출했다.

D조의 仁荷大는 1회말 4번 盧亨根의 2타점안타등 4안타와 수비실책 1개로 4점을 얻어 일찌감치 승세를 굳히고 동향 仁川專門大를 7-1로 눌렀다.

이날 경기서 가장주목을끈 선수는 成均館大의 숨은인재 韓禧敏. 世光高출신으로 2년생인 언더드로 투수의 韓禧敏은 9회까지 嶺南大에 3개의 안타를 허용하고 삼진10개를 빼앗는등 위력적인투구를 보여 새로운 유망주로 등장했다.

1m83의장신에 67kg의 가날픈 몸매이며 타자앞에서솟아오르는 속구가 일품. 9회초 嶺南大 1번 姜起雄에 투런홈런을 맞아 동점을 허용했지만 1~3회에는 2개씩의 삼진을 빼앗아내 기선을 제압했다.

韓禧敏은 예선3게임에 모두등판, 漢陽大전에서는 5안타(자책점2), 釜山産業大에게는 7회동안 7안타(자책점0)를맞아 모두 25이닝서 15안타, 방어율1.04의 호투를 기록했다. 한편 嶺南大의 1번 姜起雄(1년)은 9회초 자신의 대회 2번째 홈런을 날려 기염을 토했다.

◇제6일전적

▲C조

영남대 (1승1무1패)	000 000 002	2
성균관대 (2승1무)	000 100 01×	2

▲홈런=姜起雄(9회·2점·영남대)

한양대 (2승1패)	100 000 200	3
부산산업대 (3패)	000 000 000	0

▲홈런=金京約(1회·한대)

▲D조

인천전문대 (2패)	100 000 000	1
인하대 (1승1패)	400 200 10×	7

9월 蘇세계레슬링파견 選拔戰

金鍾奎등 1회전통과

오는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소련 키예프에서 열리는 83년도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대표선수파견 1차선발전이 31일 문화체육관서개막됐다.

첫날 자유형플라이급의 대표선수 金鍾奎(주택공사)는 1회전에서 徐東氣(한국체대)를 테크니컬폴로 제압하고 2회전에 나갔으며, 작년도 한국신인체육상을 받은 주니어플라이급의 魯炅官(주택공사)는 鄭基達(경북공고)을 1분30초만에 폴로 눌렀다. 같은 체급의 曺永珍(함평농고)도 3분38초만에 李相伯(동국대)을 폴로 제압, 2회전에 진출했다.

그레코로만형 밴텀급의 상비군소속 成海龍(한체대)는 동료 周光鍾과 金永範(삼진종고)을 각각 4분과 1분만에 폴로 눌렀다.

같은급의 李建漢(대전체고)도 朴炳杰(동아대)를 4분59초만에 폴로 물리쳤다.

페더급에서는 安大鉉(한체대)이 任浚(동국대)을 2분45초만에 폴로 따돌리고 2회전에 올라갔다.

1일 폐막되는 이번대회에는 泰陵선수촌에서 훈련중인 대표선수들과 협회의 별도훈련을 받는상비군들이 모두참가했다.

그러나 그레코로만형 플라이급 세계랭킹 3위인 方大斗와 자유형 주니어플라이급의 호프 孫甲道는 부상으로 이대회에 불참했다.

2차선발전은 4월20일에 거행되며 1, 2차 선발전2위까지 4명이 6월에 열리는 최종선발전에 출전하게된다.

카누 正式종목出帆

金容昇회장 "大學部등 지원"

국내 스포츠의 미개척분야였던 카누가 정식종목 단체로출범했다.

체육부와대한체육회의 후원아래 발족된대한카누협회의 金容昇신임 회장(금성전선 사장)은 31일 『88년 서울올림픽의 금메달종목으로, 그리고 범국민적 레저스포츠로 카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기자회견서 밝혔다.

카누는 올림픽에서 남자카약과 카나디안, 여자카약등 승선인원수와 거리별로 12개의 金메달이 걸려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외에 日本, 中共, 北韓,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등이 협회를 구성, 활동하고있다.

金容昇회장은 카누보급을위해 금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4월중 경기정 44척을 도입, 각시도지부에 공급하고 체육고·대학등에 카누부활동을 지원, 경기인구를 늘려 나가겠다고말했다.

◇카누협회집행부

▲회장=金容昇▲부회장=金志柱·朴喆斌·李宗澤·朱東煥▲이사=朴汀洙·梁濱模·洪性哲·李源雄·白光世·姜求鎬·韓相俊·鄭仁成·李鎭煥▲감사=朴潤珍·吳龍助

朴柱奉組 3위차지

全英배드민턴

【길퍼드(英)聯合】全英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朴柱奉과 李恩求는 30일 남자복식 3·4위 결정전에서 말레이시아의 R·시데크―J·시데크組를 2-0(15-5 18-17)으로 물리치고 3위를 차지했다.

킹스컵복싱 開幕

한국 全체급출전

제19회 킹스컵 복싱대회가 4월1일부터 7일까지 泰國 방콕서 열린다.

이번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美國·소련등 15개국 선수들이 출전하며 한국은 11개 전체급에 2명씩 복수 출전한다.

◇한국선수단

▲단장=趙東河▲감독=趙倫根▲심판=俞石奎·宋榮洙▲코치=朴炯春·朴太植·도시江河▲배심원=金明坤▲의무=趙吳光洙▲플라이=許永模·朴濟錫▲밴텀=文成吉·朴炯沃▲페더=宋光植·權吉文▲라이트=金基澤·陳辛範▲라이트웰터=金東吉·李奉來▲웰터=鄭銘範·李成穆▲라이트미들=李海正·洪起鎬▲미들=申俊燮·李榮基▲라이트헤비=金鉉平·李昊洙▲헤비=金裕賢·蘇培元

은퇴앞둔 보리 "아직健在"

「몬테카를로」서 가볍게 世界6위제압

현역은퇴를 눈앞에 둔 테니스황제 비외른·보리(26)는 몬테·카를로 오픈 1회전에서 3번시드의 호세·루이스·클레르크(아르헨티나)를 2-0(6-1, 6-3)으로 간단히 격파, 건재를 과시했다.

세계6위에 랭크돼 있는 클레르크는 보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4월 라스베이가스 예선전에서 탈락한후 첫대회출전이어서 쉽게 이길것으로 예상됐었다.

결과는 반대였다. 상금 30만달러가 걸린 이대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대회에서 은퇴하는 보리는 의외로 쉽게 승리, 주위를 놀라게 했다. 보리 자신도 경기가 끝난후 『나도 정말 놀랐다. 1회전에서 패배도 각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리의 플레이는 날카로왔다. 그라운드·스트로크는 매끈했으며 서브는 깊고 정확했다. 1세트에서는 거의 베이스라인위에서 클레르크가 비틀거릴때까지 델리를 계속, 2세트에서도 같은 전법을 유지했다.

결국 클레르크는 36개의 에러를 범했으며 더블트가 5개나 됐다.

시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던 클레르크는 『너무 흥분이 돼 경기를 할수 없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리를 보러왔으며 그는 멋지게 플레이를 했다』며 완패를 시인했다.

보리는 코트에 들어서면서 스탠드를 꽉메운 6천관중의 기립박수를 30초간 받았다.

보리가 볼을칠때마다 백여개의 카메라가 셔터를 눌러댔으며, 6개국에서온 TV카메라가 바쁘게 움직였다.

이 비로 연기된 이틀동안 몬테·카를로는 온통 보리와 클레르크의 대전얘기였다.

【몬테카를로30日AP聯合=特】

◇지난날의 박력을 조금도잃지않은 보리. 몬테카를로서 세계6위의 클레르크를 완파, 기염을 토했다.

張吉山 <170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65)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정호명은 먼저 정원태에게 절하며 인사를 청하였다. 정원태도 황망히 마주 절하였다.

『정호명이라구 합니다』

『포전 사는 정원태요. 서방에게서 사촌 형의 얘기를 여러번 듣고 꼭 한번 상면하고자 하였소』

『언니, 이 사람이 내 동무요』

정만일이 김시동을 소개하여 이번에는 반절을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요 너머 시내비골 삽니다. 김시동 이라구 허지요』

『아우가 늘상 노형의 얘기를 합디다』

정호명이 비록 만일의사촌형이기는하나이차이래야한살인지라, 시동이와는동갑나기인 셈이었다. 다만 시동이가 아직미장가로 헛상투를튼데다가 얼굴도 동안인 반면에, 호명은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이 잘나서 훨씬 위인듯 보여 겉으로는 중년인 정원태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시동이가 곁에 앉은 만일에게 눈을흘려 꿈벅해 보이니, 만일은 고개를 끄떡하였다.

『지난번에 상번 올라가서 만일이와 의기투합이 되었고 진작에 형의 얘기를 들어 만나뵈려 하였으나 차일피일 하던사이에 이렇게 늦어졌읍니다』

김시동이 넌지시 말을 꺼냈으나 정호명은 묵묵부답이었다.

『저녁들은 드셨는지…?』

딴청으로 한단 소리가 이러하였고, 호명의 물음에 정원태가 말하였다.

『밥은 시내비골에서 먹고 오는 길이 올시다』

『우리 집이 비록 구차하기는 하여도 면주인 집이라, 보통 객점과는 다르지요. 술이 끊길 날이 없소이다』

정호명이가 방문을열고 안에다 이르니 그의 아내가 술을 소반에 올려 들여주었다.

한동이와 장떡이며 침채등속 말없이 술 잔이 오고 가는데 동이가 반쯤 비워지니 자연히 잔질이 사이가 뜨게 되었다.

『내가 무에 꺼릴 바가 있어 교묘하게 말을돌리거나 회피를 하겠소. 댁네들의 내막은 아우에게서【소상히 들었읍니다』

정호명이 기다렸다는듯이 시원스럽게 말을 꺼냈고 정원태가 만일을 돌아보았다.

『무슨 말씀을하셨는지…』

『계의 얘기를 하였고, 제가 계에 들었다고만 하였읍니다』

만일의설명을 듣더니 정원태는 고개를 갸웃하였다.

『글쎄… 그런 얘기뿐이라면 소상하게 말씀 드린 것은 아니외다』

『나는 아우의 말을 듣고 오히려 꾸짖고 힐난하였소. 검계의 소문이 근간에 사방 저자에 낭자하였으나, 내가 듣기로는 화적당에 지나지않으니 대장부가 실족에서 굽히어 숨어 살지라도 어찌 뜻없는 무리에 들겠소이까. 비록 동당입계하지는 않아도 관가에 발고하지는 않을 터이니 마음을 놓으시우』

정호명은 서슴지않고 말하였다. 김시동이 참지못하여 욱 하고 대들었다.

『우리 계가 화적당과 같고 뜻이 없는 무리라니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우?』

정호명은 껄껄 웃었다.

『노비들이 제 주인을 죽여 포한을 풀겠다고 당을 이루었다는 살주계나, 그와 체결하여 양반을 없앤다는 당신네 검계가 무슨 경륜이 있다는 게요? 저지른 일이란 부자집을 겁탈하거나 노상 강탈을 자행하고 포도군사 몇명을 살상한외에 또 무슨 일을하였소?』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셜본서쪽)

LOEB
CASH "N" CARRY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신문구독자 10명중 9명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는…
그리고 항상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일보가 매일매일 가장 열심히 만드는 일간신문이기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만드는 신문
"한국일보가 새로와졌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요즘 한국일보는 내용이 좋다."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신문"이라고 말해주는 독자도 적지 않읍니다.
한국일보가 과연 새로와진 것인지, 내용이 썩 좋아진 것인지 장담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일보가 ▲가장 많은 기자에 의해 ▲가장 열심히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신문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한층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다.

大型주택 재산稅 重課

億臺 넘으면 稅金2배로
국민住宅규모 20坪이하

政府、投機억제對策 검토

정부는 규모가 큰주택에대해서는 재산세를 많이물리고 국민주택규모도 현행 25.7평(85㎡) 이하에서 20평(66㎡) 이하로 줄이는등 투기억제대책을 검토하고있다。

이와함께 17~18평의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 규모도 늘리기로했다。

이같은 대책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위원회에 넘겨져 협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있고 특정지역으로 일단고시되었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 국세만이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實거래가격)에의해 부과되고 재산세·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는 기준싯가의 5분의1도 안되는 낮은수준에서 부과되고있어 과세상 균형을 잃고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특정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토지에대한 재산세의 싯가표준액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하는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특정지역외에있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중과, 싯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최저0.3%에서 최고5%로 되어있는데 이를 0.3~10%로조정, 싯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는 호화주택의 재산세율를 2배(5%에서10%)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투기를 노려 빈번히 이사하는것을 막기위해 일정기간안에 이사할때는 1가구1주택이라도 현재 면제되고있는양도소득세를 조정 세금을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交叉승인 價値있다

아베 日外相밝혀

【東京=聯】아베·신따로(安倍晋太郞) 일본외상은 30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위해 美·日·中·蘇가 남북한을 각각 승인하는 이른바 交叉承認이 충분한가치를 갖고있으며 일본도 어떤형태로든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아베외상은 이날 참의원외무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엇보다도 남북대화의 진전이 기본적으로 긴장완화를 촉진한다는의미에서 일본은 대화에 의욕적인 한국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放審委員 6명交替

姜위원장 留任

방송심의위원회는 30일 정기총회를 갖고 위원 15명중 6명을 교체했다。한편 2년임기를 마친 姜周鎭위원장(전 국회도서관장)은 유임되었다。

이날 구성된 새방송심의위원15명은 다음과같다。▲姜周鎭(위원장·전 국회도서관장)▲金宗西(부위원장·서울大사대학장)▲許東華(위원·문화재전문위원)▲趙德松(조선일보논설위원)▲宋貞淑(서울신문논설위원)▲丁世雙(전경련 상무이사)▲金容鈞(국회문공위전문위원)▲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李雄熙(문화방송사장)▲鄭晋慶(신촌성결교회목사)▲金東喆(梨大신문방송학과장)▲梁廣南(中央大학생처장)▲朴完一(대한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장)▲白秉東(서울大음대작곡과과장)▲金海都(사회정화위제5부장)

國會의장 蔡汝植씨

副議長엔 尹吉重씨 內定

民正黨은 30일하오 국회의장에蔡汝植국회부의장이、국회부의장에는 尹吉重 의원이 각각內定되었다고 본인들에게 통고한것으로 알려졌다。

民韓、國調權발동 요구

民正도 곧 科學수사 對策마련

폭행致死사건

與野는 경찰수사도중 사망한 韓一合纖 金根祖씨사건에 따른 진상규명과 경찰의폭력수사방지등 일련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民韓黨은 30일 경찰의고문수사등을 추궁하고 진상을조사하기위해 오는 임시국회에서 國政조사권의 발동과함께 정치적 차원의 引責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국민당도 책임자에 대한 引責공세를펴기로했다。

또한 民正黨은 金씨사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날 사건전모에대한 보고를듣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경찰의 수사업무개선을 위한 조만간 근본대책을 마련키로했다。

民韓黨은 30일하오 원내총무단과 인권옹호위원회및 국회法司·內務委등 관계常委소속의원 연석회의를열고 金씨사건의진상을 캐기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의고문사실을 규명키위한 國政조사권의 발동을 요구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金씨의 고문사건은 물론 또다른 경찰의 고문事例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키위해 이번 사건에대한 인책범위에 대해『경찰행정적 책임이상의 정치적 책임까지도 묻기로 했다』고 林鍾基총무가 발표했다。

특히 이날회의에서는 人權유린사태의근본적인방지책을논의한끝에제도적장치의일환으로 假稱「고문행위에대한 加重처벌법」등 특별立法조치를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法司委에서 구체적인문제를검토하기로했다。

民韓黨은 이문제와 관련 임시국회전에 별도의 국회內務委소집을 강력히 與黨에 촉구키로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서 專擔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했다。

이밖에도 회의는 監査院의 기능문제와 관련『감사원은 告發기능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동원했다고 지적、그진상을 추궁키로했다。

국민당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尹錫民총재권한대행주재로 당직자회의를갖고 金根祖씨 死因조사차 釜山현지를다녀온 조사반(趙炳奎·申德鉉의원)으로부터 보고를듣고대책을논의、이번사건은 국민輕視의 사회구조적 병폐에서 빚어진「만행적 拷問致死」로 규정짓는한편 국회내무위를 즉각열어 사건의진상을 규명하고 치안책임자의 引責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는 내무위가열리면 治安本部수사대업무의 문제점과 사망진단서도 발급치않은 상황에서 假매장을 한이유、사건재발방지책및 金씨유가족에대한 국가배상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키로했다。

한편 民正黨은 이날하오李春九내무부차관을 당사로불러 치안본부가 조사한 사건발생의 경위와 고문행위등에 대한 보고를들은후 야당의內務委소집 요구문제를 면밀히 검토했다。民正黨은 아직 中執委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명간 黨5役회의등 黨職者회의를 열어 4월임시국회대책을 협의할 방침인데 이때 金씨사건에대한 대책을 아울러마련、발표할 것이라고 金琀泰대변인이 밝혔다

尹碩淳사무차장은 이날內務委를 금명간소집 이문제를 다룬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기때문에 4월임시국회에서 이사건에대한 정부측보고를 듣고 대책을강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모아져가고있다』고 말하고『특히 정부가 자체조사를통해 사건의경위를 발표했고 관련책임자를 조치하겠다고 밝히고있기때문에정부가 취할 조사와 조치결과를 지켜보고난후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尹차장은 또『黨으로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와 협의할생각』이라며『근본대책으로는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통한 과학수사의 보급과 반드시 경찰서안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도록 구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있다』고 말했다。

留學生시험 不正

故意性 규명키로

民韓 總務團회의

民韓黨은 30일하오 총무단과 국회文公委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國費해외유학생시험不正사건을 논의한 끝에 그동안 조사결과 採點不正에 故意性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결론을내리고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문교당국자의 引責요구등을 집중적으로 펴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國費유학시험채점에서 부정의 故意性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사건발생 20여일이 지났는데도 문교당국은 지금껏 한마디해명도 없다고 지적、부정의고의성에대한 철저한규명과 책임문제등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기로 결정했다。

정신疾患者 申告해야

民正、관계法 마련

危害우려땐 保護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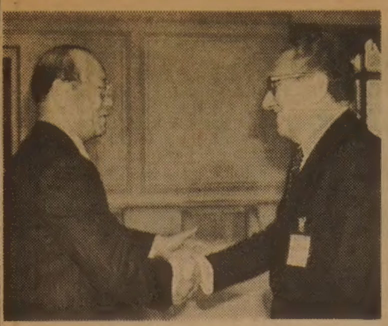
民正黨은 산업화추세에 따라증가일로에있는 정신疾患者를 효율적으로 치료보호하기위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로 하여금 가족중의 질환자를 관할보건소에 반드시신고토록 의무화 한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精神保健法案」을 마련, 빠르면 오는 9월의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孫春景의원이 중심이되어 國策연구소가 마련중인 이법안은 정신분열증·조울증등정신질환증상이 있는 환자의가족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를신고토록 하는한편 서울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본인이나 他人에게 危害를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족에게보호를 명할수있도록 되어있다。

또 법원 기타공공기관은신고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신병원에 유치할것을 명할수있도록하고 정신장애로 인한범죄로 인정되어사법상의 처벌이 면제된는刑이 면제된 그날부터 즉시 치료및 보호조치를 취하도록의무화했다。

이법안은 특히 부족한 정신장애자의 진료시설을 확대하기위해 종합병원등을 신설할경우 精神科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종교단체나개인이 운영하는 기도원·수도원등이 의료법에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을 완비할경우 稅制와 금융상의 혜택을주도록하고있다。

이밖에 보사부안에「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두어、정신건강업무 종사자의 자격과정신질환자의 강제보호대상 해당여부등을 심사토록했다。



스리랑카 首相에 全대통령이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30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스리랑카의 프레마다사 수상내외의 예방을받고 修交훈장 光化大章을준뒤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全대통령과 프레마다사수상이 환담하는동안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수상부인을 별도로 만나 환담을 나눴다。

키신저 前國務접견

全斗煥대통령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韓美경제협의회 초청으로 이날 來韓한 헨리·키신저 前美국무장관(현재美조지타운大초빙교수)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韓·스리랑카首相 어제會談

農村개발 한국參與등 협의

訪韓중인 프레마다사 스리랑카수상은 30일상오 중앙청으로 金相浹국무총리를예방、총리회담을갖고 상호간의 우호증진및 경제협력 확대방안에관해 논의했다。

金총리와 프레마다사수상은 스리랑카의 농촌지역개발과 건설분야에 한국의 技術陣이 참여하는 문제등 경제통상증진을위해 서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회담에서 金총리는 非同盟회의에서 스리랑카가 한국을지지해준데대해謝意를표했고 프레마다사수상은 대화와 협력를 기초로하는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지지를 밝힌뒤『모든분야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싶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韓·스리랑카양국간의 무역逆調에대해 서로 관심을 갖자는 프레마다사수상의 제의에『상호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대답했다。

프레마다사수상은 金총리가 스리랑카를 방문해주도록 초청하고서울에常駐公館설치를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 金宗鎬건설부장관등이 배석했다。

한편金총리는프레마다사수상을위해 이날저녁 하이야트호텔에서 베푼 만찬연설을 통해『韓·스리랑카양국은 對等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이익과 개발을위해 서로 경험을 나누고 보완해줄수있는분야를 발전해 우호협력의폭을 확대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스리랑카는 비동맹운동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비동맹회의는 물론、각종국제무대에서 南北韓간의 직접대화를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꾸준히 지지해온 진정한 우리의우방』이라고 말했다。

警察、폭행致死 全貌발표

★記事⑨면

◇鄧-오닐「서먹한」對坐 中共을 방문중인 토머스·오닐美下院議長이 30일 北京 人民大會堂에서 중공의최고지도자 鄧小平과 만난 자리에서 鄧이 自筆서명해준 사진을 들어보이고있다。鄧은 이자리에서 美·中共관계가 지난 79년절정에 달했었다고말해 현재의관계가 원만치못함을 시사했다。【北京30日AP聯=聯合】

拷問경찰 엄벌하라

大韓辯協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澤鉉)는 30일 한일합섬 金根祖씨 고문치사사건에대해 성명을 발표、『광복후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제의잔재인 고문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은 반성해야한다』고 말하고『金이사를 고문치사한 경찰관들을 엄중처벌하고 다시는 이나라에서 이러한 수치스런 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엄중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명은 또 지난해 살인누명을쓰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고함이 밝혀졌던 金詩勳씨사건때도 변호사협회는 조사를펴 金씨가 경찰관들의 혹독한 고문에의해 허위자백을한 것임을 밝혀낸적이 있다고 지적하고『이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전에 간부급경찰관들이 회사의 임원을 여관에 불법감금、가혹행위를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처사는 용납할수없다』고 말했다。

不法수사 再發없게

人權옹호聯도 성명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李活)은 30일 한일합섬 이사 金根祖씨 고문치사사건과관련、성명을발표하고『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과고문、감금등에대한 규탄과 함께 증거수사의 필요성이 되풀이 강조돼왔는데도 불법수사가 청산되지않은채 이번과 같은비극을 빚은것은 슬픈일이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또 盧泰愚내무장관이 사과와함께 조속한시일

社會漫評

億臺이상은 저위에 짓도록좀…

地平線

『소송은 미국사람들의 흥흥한 생활을확보해주고 있다。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자를 고발함으로써 권리를 지킨다』ー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변호사 멜빈·벨리라는 사람은 미국의 철저한 법치주의와 훌륭한 사법제도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그래서 법은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룰수 있어야 된다고 그는 말한다。▼미국은 지금「재판 사태」라고한다。작년 한해동안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만 20만건을 넘어 한해동안 14%가 늘었다。소송이 많다보니 통계도 잡을수가 없다。각주의 법원에 제기된 총소송건수는 77년도에 1천2백만건이었다는 것이 겨우 알려져있다。따라서 변호사도 전국에 61만명이나 된다。변호사의 충동 때문에 소송 사태가 벌어진다는 비판도 있을정도다。▼법에의한 인권옹호의 천국이라는 미국사법제도에도 문제가 많다。그중의 하나가 철저한「증거주의」때문에 조직범죄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증거를 잡기 어려운 조직범죄는 눈감아 주고、대신 교통위반같은 작은 죄만 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배심원과 변호사의 역할이 커서「편견」이 문제되기도 한다。▼멜빈·벨리변호사는『법정에서의변호사의 변론이 재판결과의 25%를 좌우한다』고 말한다。나머지 75%는「사건자체」에 달려있다고 그는 풀이한다。「화려한 변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러니까 힘없는소수민족이 불리할수도 있다는 얘기다。살인누명을 쓰고 10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하다나온 재미동포 李喆洙씨의 경우가 그 실례다。▼李喆洙씨의 살인누명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됐었다。화교범죄조직은 백인이나 흑인범죄조직과달라 동양계만을 노리는특징을 갖고 있다。李씨는 말하자면 화교범죄조직과、미국 사법제도의 약점의 희생자라고 할수있다。무엇보다도 6·25라는 전쟁이 낳은 비극의 산물이다。그러나 李씨의 경우、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라는뜻에서 미국의 소수민족과 사법제도의 승리라고 할것이다。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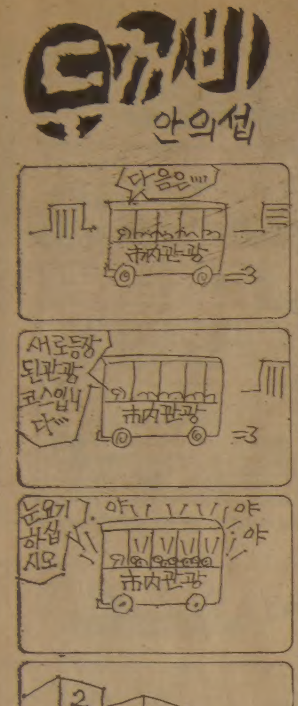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폭행卒倒… "飮毒"으로 誤認

치안본부 韓一합섬理事 致死사건 전모발표

"국민에 謝罪… 再發방지最善"

치안본부는 30일 韓一합섬이사 金根祖씨(42)에 대한 수사관의 폭행치사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발표에서 『당초 이사건은 韓一합섬에서 정부방침에따라 비업무용 임여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후 다시 매입하기위해 토지개발공사의 경매과정에 계열회사 간부등을 위장경쟁자로 내세워 담합,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밝히고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으며 유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아울러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사경위

치안본부는 釜山으로 파견돼 수사를 한 경찰관은 金萬熙경위(38)와 崔相根경위 羅基瓊경사등 3명으로 金경위는 釜山市中區大廳洞2街 산장여관308호실에서 金根祖이사를, 羅경사는 韓一합섬직원 章晋瑄씨를, 崔경위는 307호실에서 李武杰경리과장을 담당 수사를 했다.

金경위는 金이사를 조사하면서 옷을벗게하고 얼른려뻗쳐를 시켰으며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차례 때려 졸도케했다.

金이사가 졸도하자 金경위는 崔경위와 함께 釜山大병원으로옮겨 위세척을시켰다.

이것은 조사를 받던중 金이사가 신경안정제 아티반을 먹으려고해 제지한일이 있기 때문에 극약을 먹은것으로 오인했던것. 따라서 뇌수술 시간을 지연시킨 결과를 빚었다.

수술경위

金이사가 숨진뒤 부검은 부산지검 金祥駿부검사지휘아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尹重鎭박사등 4명의 집도로 이루어졌고 釜山의대 李성경병리학과장 釜山법의학위원회 소속의사 蘇炳國씨와 유가족이내세운 의사 金오경씨 6촌형 金亨建씨등이 입회했었다.

경리과장 李武杰씨도 구타를 당했다는 부분에대해서는 李씨가 崔相根경위에게 조사를 받을당시 같은 307호실에는 참고인 金淑弘씨등 2명이 함께있었으며 본인이나 참고인이나 구타사실을 부인하고있어 사실과 다르다.

토지경매방해사건

韓一합섬이 지난82년1월20일사장 金重源씨의 장인 崔漢雄씨 명의로된 釜山東區大昌洞3街103의1등 3필지대지5백14평을 7억9천3백58만원에 비업무용 토지로 토지개발공사 釜山지사에 매도하고 그해 3월15일 韓一합섬 자금담당이사 金根祖씨가 주동이돼 부정하게이를다시 매입했다는 것이다.

金이사는 大昌洞 103의10 대지2백29평은 경리부장 金甲敏씨와 石昌洙씨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담합, 내정가격 4억5천8백만원인 이땅을 金이사는 4억5천8백원을 金重建씨 명의로 기입하고 金甲敏씨등은 4억4천만원을기입, 石昌洙씨는 4억원을 기입케해 金사장에게 낙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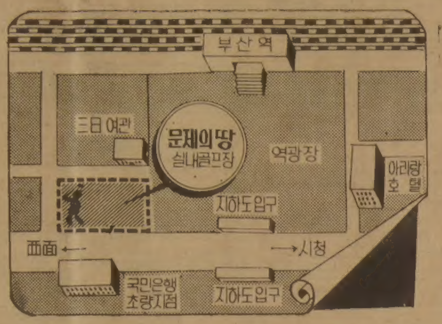
金이사는 또 大昌洞103의1등 2필지 2백85평의대지도 계열기업인 경남모직총무부장 진재술씨, 韓一합섬경리과장 李武杰씨를 내세워 내정가격 4억3천만원보다 적게 기입토록하고, 韓一합섬사장 金重源씨의동생 金重光씨명의로4억3천10만원에 낙찰되도록했다는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입찰방해와 토지개발공사직원과의 공모여부에대해 수사중이었다.

外遊 安치안본부장 일정단축 歸國예정

현재 칠레의 경찰청장초청으로 외유중인 安應模치안본부장은 일정을단축, 공식스케줄이 끝나는대로 곧귀국할예정이다.

安본부장은 지난27일하오 출국, 오는4월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30일 내무부의 연락을받고 공식일정이 끝나는 오는2일 바로 귀국길에오르는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창업주 一家에

非업무용으로 土開公넘긴 문제의 땅

문제가 된 韓一합섬의 땅은 창업주 金翰壽씨(82년8월16일 작고)가 생전에 아끼던 釜山역광장오른편에 위치한 금싸라기.

지금은 인도어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으나 미관지구안에 유일하게 공지로남아 주변상가지역에서 눈독을 들여오던 땅이다.

문제가 일어난것은 이땅이 82년1월 창업주의 아들인 金重源씨의 장인 崔漢雄명의로 돼있다 정부의 9·27조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방침)로 토지개발공사에 넘어갔다 다시 창업주의 2남 金重建씨와 3남 金重光씨에게 넘어간 과정에있다. 土開公은그직후인 82년3월초 일반매각공고를내고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는데 한일합섬측은 회사이름대신 이회사理事급간부직원들인 金重建, 金重光이라는 개인이름으로 응찰, 다시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회사내의 가족 파벌간에얽힌 재산싸움으로 최근 정부감사당국에제보가된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감사원에서 내사를 벌여왔다.

82년1월에 7억9천만원에 토개공에 넘겨졌던 땅이 3개월뒤 3필지로 분할돼어 몇개 창업주의 두 아들에게 8억9천만원에 다시 넘어가게됐는가 수사의 초점이 된것.

토개공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를 사들인후 경매할때는 개인의 독점을 막기위해 3필지이상으로 분할하고 매입가격에 12%정도의 경비를가산해 파는것이 관례로 돼있으나 金씨등은 당초 팔았던가격에다 14%가량 더 비싼값으로 사들였다.

응찰에 사용한 수표는 추적결과 모두 韓一합섬의 회사수표로 밝혀지고 응찰자가모두 회사 관계자들이라는점이 드러나면서 석연찮은 의문은 더 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예산회계법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응찰자격을 제한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고 또 입찰과정에서 개인이름으로 응찰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법법사실을 조사할수 없게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것이다.

이땅이 당초 토개공에 넘어가자 작고한 창업주 金회장은 『다시찾아야한다』고 측근에게 말해왔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金회장은 원래 이땅에 관광호텔을 짓기로 마음먹고있었는데 정부의 9·27조치로 이땅을 매각한뒤로는 이곳에 국제의류종합전시장을 세우겠다고 자주말해왔었다는 것이다.

"拷問으로 숨졌다"

民韓黨 外科醫 진단서 공개

金根祖씨사건을 자체조사중인 民韓黨조사반(반장 朴寬用의원)은 30일 숨진金씨는 고문에의해 사망했다는내용의 견해가 기재된 外科전문의의 死亡진단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망진단서는 釜山市東萊區蓮山1洞369의3 金우경외과의원장金씨가 30일자로 발급한것으로 金씨의 사망의 수단및 상황에대한견해에서『고문에의한것』으로 진단했으며 사망의 종류에서『타살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단서는 직접死因으로 뇌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선행사인으로 두부타박상을 진단했으며 死體부의 주요소견난에는▲좌측두부에 길이10㎝ 폭2~3㎝의 타박상이있고▲전신타박상▲뇌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朴의원은 30일하오숨진金씨의 미망인등 가족들과 서울上道洞자택에서 만났는데 이자리에서『유가족들은『경찰이 金씨의 입원수속을 밟지못하도록 병원측에 부탁을 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이날현재 釜山大병원은『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의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정식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지않다』고 밝히면서『金씨의 유가족들은 이번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정식고소를 제기하기위한 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특히『유가족들은 金씨의 死因수사를 경찰이 아닌 제3의기관에서 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發表여부놓고 陣痛

文案도 수차修正…경찰 분위기침통

金根祖이사의 사망과 수사경위를 나름대로밝힌 이날치안본부는 침통한 분위기였다.

지난25일 金이사가 숨진이래 정확한 사망원인과 수사과정이 밝혀지지않은채 불법연행감금 고문사실이 산발적으로 보도되면서 문제가확대되자 경찰은 연일 대책을숙의, 발표여부를놓고 진통을거듭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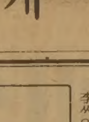
지난28일 盧泰愚내무장관으로부터 엄중질책을 받은 경찰간부들은 사후대책과 유족에대한 문제를 숙의하다가 결국 사건경위를 먼저 발표하기로 결정,이날 발표를 하게된것. 이날 발표문은 여느때와는달리 발표문안을 하나하나를 내부부전간부가 검토하느라 시간을 끌었다.

상오10시께 발표하겠다던 내용은 몇차례 수정을가한끝에 발표직전 金이사의 혐의사실을 공식발표에서 삭제하는등 세심한 신경을썼지만 결국 金경위의 폭행과정이 상세히 밝혀지지않아 궁금한 부분은 남게된셈이다.

사건이난후 처음 내용을발표한 간부들은 모두가『국민에죄송하다』고 말할뿐 입을다물었으나 관련자처벌등 수습과정에서의 간부문책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 시종 무거운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3代가 한곳에… "남부러울것 없죠"

「副總長級」수위 梨大에 19년째근무 李成天씨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맞는』 경우가 드물다. 하나 천한 직업이라도 사회가 응분의 대우를 해주고 자신이 보람을 느끼면 바랄것이 없다. 그런점에서 梨大수위 李成天씨(54·사진)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도 보람을 느끼지만 따뜻한 대우도 받고있다. 직원중 총장외에 유일하게 사택에 살고있고 총장실도 별다른 절차없이 들어간다. 주위에서『부총장』 대우쯤 되는것 아니냐』고 놀릴정도다.

李씨의 이같은 위치는 하루아침에 얻어진게 아니다. 梨大80년사에 할아버지·아버지등 3대에걸쳐 94년간 봉사한 보람의 결과다. 李씨 자신도 올해로 19년째 근무하고있다.

李씨는 貞洞梨花학당자리에서 태어나 줄곧 梨大캠퍼스를 떠난일이 없다. 할아버지가 수위로근무했고 아버지가 요리사로 그뒤를 잇는동안 자기집안이 바로 梨大의 분신처럼 생각됐다는 고백이다. 그래서 30대중반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梨大에 몸을 담을 때도 별 저항이 없었다. 梨大근무 19년중 15년간을 정·후문수위로 근무했고 지금은 국제하기대학이 있는 眞館을 지킨다. 이처럼 학교안에서만 살다보니 학교에서 그의 발길이 닿지않는곳이 없고 모르는게 없어『족집게』라는 별명이 뒤따랐다.

학생들의 행동·옷차림·대화내용만 듣고도 대강 학생들의 취향을 알아 맞힌다. 기숙사생들도 자신이 정문에 서있으면 외출했다가도 귀가시간을 넘겨도 한숨을 돌린다고 귀띔한다. 그만큼 학생들을 깊이 이해한다는 뜻이다.

정년을 2년남기고 있는 李씨는 3대에걸친 인연이 자기대에 끊어질까봐 걱정이 태산같다. 두아들이 있지만 모두 토목과 건축을전공, 제갈길을 가고있기때문. 『마련해주면 강제라도 아들중 하나를 끌어들이고 싶다고했다. 『좋은 직업이 따로있습니까. 우받고 적으면 적은대로 그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거지요』꽃같은 아가씨들속에 묻혀살아 10년은 젊어보이는 李씨에게는『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산예를 보았다. 【朴珍烈기자】

근로자災害 갈수록 늘어

작년4%… 日의5倍 再活대책도 미흡

어제 仁川서「근로복지 심포지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평균1천명당 39명이 재해를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해발생률은 일본과 대비해볼때 5배, 영국에 비해서는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재해자를 다시 직장에 복귀시키는 재활훈련의 혜택은 너무낮아 근로자복지라는 측면에서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仁川 중앙병원에서 열린 근로복지공사주최「근로복지증진을위한 심포지엄」에서 大邱大총장 李泰榮씨가 주제 발표한「산업장애자복지증진을 위한 직업재활및 고용대책」에서 밝혀졌다.

李총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난10년간(73년~82년)의 연평균 재해율을 보면 73년부터 78년까지는 44~45명이었으나 78년을 고비로 떨어지다 80년엔 30명, 81년 34명, 그리고 지난해엔 39명으로 다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재해자 13만7천명(사망1천2백30명)은 산재보험시행 1년후인 64년의 1천4백89명에 비하면 무려 93배, 73년의 4만6천명에 비해서도 약3배나늘어난숫자.

지난해 산업별재해자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광업분야가 가장 희생이 커 근로자 9만명중 1만8백27명이 사고를 당했으며 이가운데 2백43명이 사망, 1천명당 23명이 숨진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5배에 해당된다.

다음은 건설업부문의 근로자로 51만명중 2만7천2백86명이 다치거나 숨져 1천명당 53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제조업분야는 1천명당55명이나돼 일본의 5.5배, 영국의 2배나 됐다.

또 형태별로보면 기계에손발이 잘리거나 끼어 가 18.3%, 무리한동작이 17.4%, 추락 12.5%, 낙하물에 의한 부상 12.2%로나타났다.

참고로 지난78~82년사이 5년간의 산업재해로인한 사상자수는 63만여명에 달해 매5년마다 한번씩 큰전쟁을 겪는 피해를입고있는셈이다.

이처럼 산업재해로인한 장애자가 급증하고있으나 이들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의 기회는 거의 없는 상태.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73년~81년간 산업재해자중 직업재활대상자는 10%인 9만2천5백65명이나 실제로 산업재활원에 들어간 사람은 8천4백36명으로 대상자의 9.1%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직업재활훈련을 받은 산업장애자는 재활훈련대상자의 5.2%인 4천7백94명에 불과, 직업재활대상자의 94.8%(8만7천7백71명)가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기계 4월까지 防護장치

어기면 刑事처벌

노동부

노동부는 30일 아세틸렌용접기·둥근톱기계등 위험도가 높은 기계·기구등을 한대이상 설치한 사업장에대해『4월말까지 반드시 방호장치를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오는5월1일부터 이들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실시, 방호장치를 안한 업소들은 적발되는대로 형사입건, 처벌키로했다.

재일동포 寒食성묘단

1陣90명 어제入國

조총련계 재일동포 한식모국방문단 1진90명이 30일하오 金浦공항착, 그리던 고국땅을 밟았다.

이번에 입국한 모국방문단은 대부분 최근까지 조국에대해 부정적자세를견지하고 75년부터 시작된 모국방문을 계속거부해왔던 조총련의 핵심요원들. 그러나 그동안 모국방문을 마친 동포들로부터 고향소식과 동포애를 전해들은후 최근북괴의 金正日왕조세습에따른 체제강화에 염증을느끼고 고향을찾기로 한것이다.

일본京都에서 염직업을 하는 文性州씨(65)는『50년에 조국땅을밟았는데 그동안 조총련의 선전에속아 조국을 등지고 살아온것이 부끄럽다』며『이번방문길에 아들 大弘과 고향인 전남潭陽郡에있는 조상들을 찾아보게 돼 무어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바빠진 農夫일손 쟁기질이 끝난 밭에서 흙을 고를때마다 쇠스랑 끝에서는 흙냄새가 진하다。흙냄새가 짙은것을 보면 봄은 이미 깊이 와있는 모양이다。【30日 경기高陽郡知道面幸信里에서】

한가족 3명 안방서 숨져

【釜山】29일 하오11시께 부산東萊區蓮山1洞589 이용우씨(42무직)집 안방에서 이씨부인 김말연씨(38)와 장녀 이경양(15) 장남영복군(12)등 세모자가 숨져 있는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8년전부터 지병으로 실직상태이고 김여인이 인근 가내공장에 나가 월수10만원의 어려운 생활을꾸려오면서 미뤄김여인이 생활고를 비관, 자식들과 함께 독극물을마시고 자살한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위해 시체를 부검키로했다. 【聯】

李淳福양 첫 公判

미스서울 被拉소동

피납소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미스서울 李淳福양(27)에대한 밀항단속법위반및 위조공문서 행사사건 첫공판이 30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安文寓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李피고인은 사실신문에서『지난해 9월5일 金浦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여권을휴대, 제시한 기억이 없으며 미국에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감금죄로 추가기소돼함께 사실신문을받은 韓昇熙피고인(27)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恩平區鷹岩洞 신라다방앞에서 미리준비한 승용차로 李피고인을 강제납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시인했다.

李피고인은 지난1월미국에서 강제송환돼 구속기소됐으며 韓피고인은 여권법위반사건으로 지난1월12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현재항소심에 계류중이다.

琴湖호텔火災 사망

日人가족 2억訴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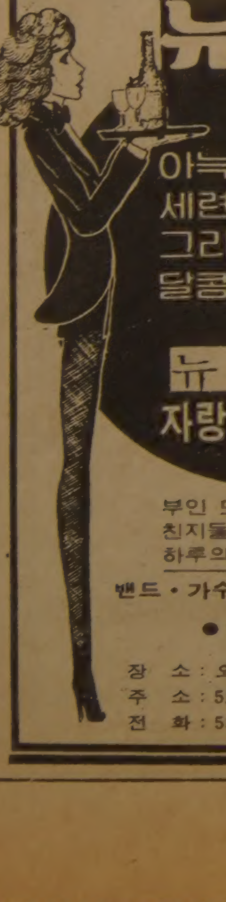
【大邱】大邱 금호호텔 화재로 사망한 10명의 투숙객중 일본인 紫見吏一씨의 미망인 紫見孝子씨(서울龍山區東部二村洞 리버사이드 빌리지아우스505호)와 2자녀등 일가족 3명이 금호호텔사장 金英基씨(46·大邱市中區下西洞28·구속중)를 상대로 2억3천7백여만원(일화 6천8백89만8천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사망자 유족중 처음으로 대구지법에 냈다. 【聯】

大檢 중앙수사부장

金斗喜씨 겸직발령

대검은 30일 공석중인 대검중앙수사부장에 金斗喜대검형사2부장을 겸직발령했다.

또한 공석중인 서울지검제2차장에는 朴鍾喆제1차장을 겸직하게했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국내·외)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MING AND SYSTEME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ACCOUNTING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 보십시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Mary Street,
5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4Y 1P9

◇自殺기도전의 키夫人과 同行남자

자살미수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29일 퇴원한것으로 보도된 구엔·카오·키 前越南수상의부인은 지난15일 필리핀에 도착한후 신원이 확인되지않은 한 동양계남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마닐라호텔에 나타났었다. 【마닐라30日UPI=聯合】

海外토픽

간큰 13세의 行樂 훔친巨額 훌훌탕진

13세된 한 일본학생이 지난달2일 회사 사장승용차에서 1천6백만엔(韓貨 약5천만원)이 든 예금통장과 도장을훔쳐 은행에서 돈을 인출, 한달동안 터키탕과 호화여관등을 전전하며 탕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7일 東京경찰의 미성년자불심검문으로 체포될 당시 이 소년의 호주머니에는 겨우 20만엔(韓貨6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東京】

설흔살에 할머니돼 ★아버지는 53세會祖父

설흔살에 할머니가된 불가리아의 안젤리나·파블로바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버지 일리야·스토야노프가 53세때인 지난81년에증손자를 봄으로써 세계최연소 증조할아버지의 기록을세웠다고 주장. 14세에 결혼, 21세에 세아이의 어머니가됐다는 파블로바 결혼, 21세에 세아이의어머니가 됐다는 파블로바여인은 최근 불가리아통신(BTA)에보낸 서한을통해 자신의 장녀가 14세에결혼하여81년에첫딸을낳았다고밝혔다.

강력당화효소 발견 ★쌀등 加熱않고 糖變換가능

【東京朝日=聯合】통상적인 가열처리를 하지않고도 쌀등 양곡의 전분을 糖으로 변환시킬수 있는 강력한 전분당화효소가 발견됐다고 일본농림수산성의 종합식품연구소가 29일 밝혔다.

이 연구소의 화학자들은 능력이 보통 효소보다 4~5배 더강력한 이 새효소를 실용화하게되면 식물로부터의 연료용알콜생산과 식품생산의 에너지비용감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말했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張吉山 <170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64)

『그러는 너희들은 무슨 수가 있느냐. 고작해야 남의 재물이나 노리는 도적놈이 되든가 기껏 쇠꼬챙이 휘두르며 허기나 달래겠지. 나는 그 따위 짓을 할바엔 밥 장사가 제격이다. 진인(眞人)을 만나 일국을 하지못할 바에는 좀도적은 싫단 말야』

정만일이 형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며 부르짖었다.

『우리두 도적질이나 하자구 작당한 패거리가 아니야. 언니처럼 관에서 던져주는 낟알에 목구멍이 간질거려서 노중에코박고 엎드려져 되지않는 포부만키우고 있는 이들이 아니야. 모두들 제목숨은 걸어놓구 온 식구의명줄을 걸어놓구 여러해를 이리뛰고 저리뛰며 지낸 사람들이야. 좋아, 언니가 제안위때문에 내가 혈담이된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상종않고 혈연을끊자구』

정만일은 호명을 밀쳐내고는 벌떡 일어났다. 그가 방문을 열려는데 호명이 저고리 뒷자락을 붙끈 잡았다.

『좀 앉아라』

그는 벽에 걸린 무명 수건을 집어 만일에게 내밀었다.

『상판이나 닦아』

정호명은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정만일이도 호명에 못지않은 왈자요 힘도있건만, 말의 내용이 워나 엄청난 것이라 제 형을 받아 치지도 못하고 수습도 못한채로 엉거주춤 따라앉았다. 그는 그제서야 코피가 터져서 턱을따라 가슴판에까지 흘러내린 걸 알았다. 만일이 얼굴을 닦고 앉자 정호명은 먼저 담아서 몇번 빨던 곰방대를 그에게 내밀었다.

『피워, 니가 날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알겠지』

정호명은 이어서 말하였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수대 전에 대동계 난리로 구몰된 집안의 자손이다.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해서와 기순으로 흩어진 혈족들은 입은 봉한채로 대개들 그런 사연을 안다. 나는 말리지는않아. 다만 믿기지 않아서 이러는 것이지, 내가 고변은 않으리라는 걸 너두 알겠진』

『고변? 흥, 그러면 우리가 잡히기 전에 언니는 먼저 죽어』

『이런 벼창호같은 녀석. 죽기는 다 매일반이다. 씨름판에 가봐, 메쳐서 이기거나 넘어져서 지거나 둘중에 한가지 밖엔 없어. 그러니 이겨야 할것이 아니냐』

정호명은 잠깐 생각하고나서 말하였다.

『네 동무들이 오면 내가 말을 건네보고나서 결정을 하겠다. 내가 안륵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너는 나하구 사촌의 의를 끊고 상종하지않고 지낼 것이고, 들기로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혈족이 아니라 결의동지(結義同志)가 되는 셈이다』

『좋아』

그리고 나서는 둘은 아무 말도 주고 받지 않았다. 등잔불만 까물거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그림자도 방 양편에 늘어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개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삽짝 밖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인 계시오?』

하는 신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명이 일어섰고 정만일도 뒤따라 나섰다.

『들어 오시오』

마루에 서서 호명이 말하자 마당 안으로 신동이와 정원태가 들어섰다.

『시동이 온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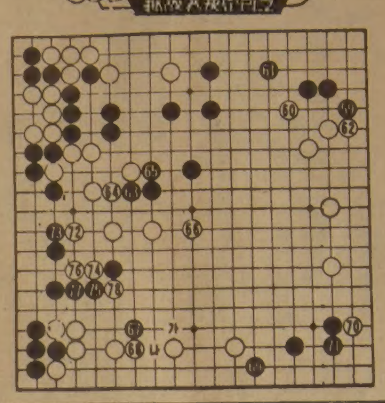
『만일이 먼저 와 있었군』

신동과 만일은 서로 반겼다.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5譜 59~78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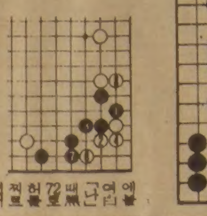
白(7段) 徐奉洙〈2勝1敗〉
黑(4段) 姜 勳〈2勝1敗〉



黑59는 기민했다. 徐7단은 잠깐동안 심각하게 지켜보다가 할수없다는 듯이 白60을 선수하고 62로 막았다. 그리고 黑63, 65를 보더니 이번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극히 긍정적인 표정이다. 63, 65는 이경우 적시안타적인 정수이거니와, 상대의 좋은 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徐7단의 대범함을 새삼 보게된 장면이기도 하다.

여기서 黑67. 실은 이수가 하나의 찬스를 놓친 방향착오였다. 徐7단은 그간 중앙 白일단을 꽤 허하게 여기고 있었다. 비록 白72의 선수는 남아있지만 72의 곳을 黑이 먼저 둔다면 양상이 달라진다. 만일 黑67로 「가」

白軍 猛攻 개시



에 붙여 「나」 때 黑72로 허를 찌르면 어해하며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67에 대하여 白68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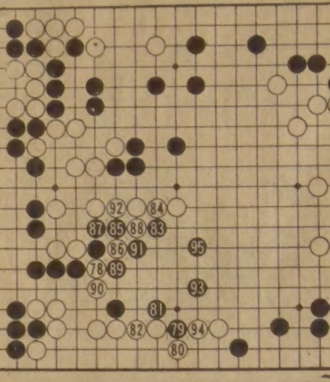
따라서 黑72의 기회는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黑69, 姜4단은 白이 응수를 하면 바로 72에 둘 요량이었을까. 아니면 이곳은 염두에도 두지않았을까. 좌우간 白은 우선 70으로 응수를 타진했다. 黑71로 분폭이하다. 참고도의 黑1은 白2이하 8까지 귀가 오롯이 살았는 것이다.

이래놓고 白72이하 78 순간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기습을 받고 黑은 궁지에 몰렸다. 【一凡】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6譜 78~95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2勝1敗〉
黑(4段) 姜 勳〈2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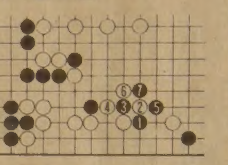


白78로 끊긴 黑일단은 당장 응수가 난감했다. 다행히 黑95까지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동안 철저히 시달린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黑79는 25분의 궁리끝에 둔 궁여지책이며 이경우의 맥점. 이에대해 白이 만약 참고도와같이 2에젖혀 반발하면 黑3이하 7로 속칭「걸려든꼴」이 된다.

黑은83, 85등 부산히 들여다보며모양을 갖춰나갔으나 白은 92의곳을 잇기전에 86, 88이 멋진 수순. 그리고 나서 유유히 92로 이어 버렸다. 白의 신나는 대목이다. 이와같은 회돌이를 당해서는 누구든지 기분이 좋을리가 없다.

黑, 위기를모면



姜4단은 쓰라린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한수마다 5、6분씩 소비하는 최대의 인내력으로 黑93、95까지 진용을 정비했다. 줄곧 白의 맹공을당한 꼴이어서 고생이 심했으나 黑이 아주 망한 것은 아니다. 공연한 「난리」를 자초한 것이지만 전체형세는 막상막하, 이제부터가 승부이다. 【一凡】

땅끝에서 오다 <21>

金成一 作 宋龍 畵

뭔가 일어난다④

준호는 백미러가 흐린것 같아서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그리고 그제야 생각난듯이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여섯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어두워오는 사무실에서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기다리는 지사장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본드의 라이터를 눌렀다. 빨간색 패밀리아는 아직도 2백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얼핏 보아 검은 색의 옷을 입고 있는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루나 담배를 꺼내 물었다. 별난 하루였다. 온 세계가 휴일인데 혼자만 엄청하게 바빴던 것 같은 하루였다. 비로소 배가 고파왔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액체만을 들이켰다. 아침부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을 들이킨 것일까. 인체의 70%가 물이란는 말이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고 있다. 라이터를 뽑아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울어지는 햇빛을 받아 동경만(東京灣)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파란만장의 하루였다. 지사장이 이 노고를 알아줄 것인가. 아직도 의문의 미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압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방은 찾았고, 중요서류도 찾았다. 지사장에게 중요한 것이 서류인지 아니면 회장측근자로서의 이 세원 부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할일은 할만큼 한 것이다.

(…이 세원,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동경의 패배자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해놓고 이건방진 챔피언은 지금 어디서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얼핏 이상한 생각이 다시 그의 머리에 갈겨져 오고 있었다. 그 누런 밤코트의 사내가 이 세원의 가방을 노렸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어떻게 이 세원이 비행기 못탄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

누군가 그에게 미리 연락을했음에 틀림없었다. 파리에서 아니면 다른곳에서. 그는 누구인가. 이 세원이 비행기 안탄것을 알았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째서 그 서류는 수트케이스에 들어있었던 것일까?)

늘 지나칠정도로 치밀한 이세원이었다. 그는 수트케이스외에 휴대용의 브리프케이스를 틀림없이 들고있었을것이다. 브리프케이스야말로 종합상사갑부의 상징처럼되어있는 필수품이었다. 그리고 이 세원이같은 사람이 수트케이스만 덜렁부쳐놓고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비행기를 탈만한 성격은 절대로 아니었던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요서류는 반드시 그가 휴대한 브리프케이스에 들어있어야했다. 그런데도 서류는 요술처럼 수트케이스의 안쪽칼피에 있었던것이다.

『정말 요술과 마술이 뒤범벅이로군』

그는 사실 루마니아의 마라가 미하이·스타네스쿠의 작품에서처럼 벽속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 얼룩져 있는 것 같았다. 해가 바뀔 때 그는 공간의 혼미속에서 엉뚱한 세월 속으로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담배 연기를 뿜으며 뽀오얀 백미러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속에 빨간 패밀리아의 모습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있었다.

땅끝에서 오다 <22>

金成一 作 宋龍 畵

뭔가 일어난다 ⑤

1월4일 월요일 아침, 신년휴가를 끝내고 문을 연 리진물산 동경지사는 서로 인사를 나눌 틈도없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사장은 출근하자마자 부장, 과장들을 불러서 미쓰모도 중공업의 합의 서명과 일본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을 하루만에 받아낼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한국으로의 서류 전달은 임준호대리가 맡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집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준호는 어제 휴일에 혼자서 고생한 일들을 생각하며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야시(林)상, 비행기는 몇시로 예약을 할까요?』

우에다·구미꼬(上田久美子)가 수화기를 귀에 댄채로 묻고있었다.

『오후 다섯시에서 그 이후 것으로 몇군데에다 겹치기 예약을 해놓아야 할것같아』

「X·프로젝트」의 서류서명이 언제 끝날수 있을는지 알수없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수 밖에 없겠어』

『어머, 제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우에다·구미꼬는 항공사쪽에 친척도 있고 친구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그쪽일을 맡고 있었다. 동경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출입국 수속은 물론이었고, 대개 높은 사람들이란 걸핏하면 스케쥴을 바꿔버리는 것이 예사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예약, 취소, 확인, 엔도스등의 일이 특히 동경지사에는 매우 많았다. 더구나 주말이나 휴가시즌에 갑자기 높은 사람의 지시대로 비행기 좌석을 따내는 일은 어지간한 빽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구미꼬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비행시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 예약을 해놓는 따위의 일이었다. 나중에 일일이 취소 연락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쪽의 기분이 좋을리는 없는 것이었다.

『우에다상, 미안해요. 사정이 그렇수 밖에 없으니…』

준호는 손가락으로 지사장실 쪽을 가리키며 한쪽 눈을 찔긋해보였다. 전에는 우에다·구미꼬가 준호에게 꽤 상냥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꽤 사무적인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야마우찌·스미에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지기 시작한 이후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선 비행기표는 대한항공(KAL)으로 사놓고 KE001로 예약해 놓을테니까 그것에맞추도록 해보세요!』

『KE001이면 몇시 출발이던가?』

『18시 20분이에요.』

『네, 알아 모시겠읍니다』

6시20분이면 적어도 4시에는 사무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때까지 서류가 다 될수 있을까.

준호는 파리지사에 텔렉스를 넣기위하여 텔렉스실로 향했다. 이 세원부장이 도착하지않은것을 알리고 소식을 묻기위함이었다. 서류만은 무사히받았으며 속히 처리해서 리비아로 발송하겠다는 점도 연락해야 했다. KDD(국제전신전화)를 찍어넣고 파리지사 텔렉스 넘버를 넣었다. OCC(통화중)였다. 이세원부장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제2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 야구대회

□ 때 : 1983년 7월2일(토) 낮12시
1983년 7월3일(일) 아침9시
□ 곳 : CENTENNIAL PARK 야구장
□종목 : ①어린이부~만12세 미만
②소 년 부~만14세 미만

〈소년부〉경기 신설 !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금) 오후7시(한국일보 본사)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박재선(755-6434)

※공은 소프트볼 사용(11인치)
※투구는 언더드로우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 것임.

주최 토론토 한국일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illegible]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운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22-2643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스타은 보증금 원함. 주매상 : $6,000. 부부운영 원함.
전화 : 439-9531 (오전9시~12시에만 본인 있음)

유경험자 주말헬퍼(토·일요일) 구함.
Mac's Milk, 아침 10시 ~저녁 10시까지
전화 : 421-1089(Eglinton & Laird Dr.)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전화 : 861-1521(B), 222-3877(R)

살림과 가게일 거들어주실 중년 아주머니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입주시 독방드림) Steeles×Dufferin
전화: 669-5301 (저녁 6시 이후)

파트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전화 : 488-1634

풀타임 웨이트레스와 주방헬퍼 급구
전화 : 536-0290

일본요리사 및 남자주방헬퍼 구함
전화: (B)755-3010

애기 봐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전화 : 276-1212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쎄일즈하실 분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캐네디안 식당에 주방헬퍼 구함.
전화 : 621-3731 (Mr. 김) Etobicoke지역

스토아 여자 헬퍼구함
18세-24세 사이. 무경험자 무방.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63-1664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합니다
전화: 532-6143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헬퍼 1명, 주말 파타임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Tor.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 1-476-3109(Keswick) Mr. 신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447-6955 Mr. Le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월수입 : $6,900
전화 : 1-389-7755 (해밀톤) Mr. 차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 매매(Bar도 겸해있음)
2,000 Sq.ft. Church St.(King & Queen)
전화 : 368-1086 (월-금: 11:00am~10:00pm) Mr. Cameron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몬트리올에 위치한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000 권리금 : $40,000+스탁(Stock)
1주 6일 시간: 9a.m.~9p.m.
주소 : 8356 St.Laurent Blvd., Montreal H2P 2N3
전화 : (514) 381-2108 Mr. 이재록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잘 손질된 야마하피아노 팝니다.
전화 : 652-0370 774 St.Clair Ave. W.

다운타운 Fast Food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아스킹 $39,000. 전화 : 593-8967, 826-3450
Steven Do. P. Ho Real Estate Ltd.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 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밀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Yonge & Steeles
전화 : 222-3299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 살림집 있음. 렌트: $625. 리스: 2년+2년
전화 : 465-4038 Mrs. Martin 아스킹 : $21,000+스탁

Thornhi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썸머린 가게로도 적합등등.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아케이드 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값어치 있는 캐비넷. 라이선스 Board. 아스킹: $2,500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Dodge 밴트럭. 1981년 6기통. 27,000Km
아스킹 : $5,500
전화 : 622-264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 포함)
전화 : 547-0841(해밀톤) Mrs. 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위치좋은 장소 세놓습니다.
구두방이나 피자 가게하기에 적합.
1370 Queen St. E.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3 Bed Room 렌트
456 Gerrard St. E. TOR.
전화: 921-4283 Mr. or Mrs. 윤

미시사가 3 Bed Rm. 디타치드 집.
Oak 나무로 층계 전부 되어 있고, 중앙식 에어 컨디션.
3 Baths. Family Rm. Laundry Rm.
Double Garage. 꼭 팔아야 함.
전화 : 279-5113 (영어로 문의 바람)

광고문의 533-2361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응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터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